

## 趙憲泳의 생애와 醫學思想

<sup>1</sup>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教授 · <sup>2</sup>韓醫學古典研究所 副所長  
白裕相<sup>1, 2\*</sup>

### A Study on Joheonyeong's Life and the Medical Philosophy

Yousang Baik<sup>1, 2\*</sup>

<sup>1</sup>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2</sup>Assistant Directo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In this paper, the life and medical philosophy of Jo, Heonyeong, a Korean Medical scholar of modern times was studied. Based on his life events and publications, his medical philosophy was examined.

**Methods** : Jo's life track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his books, written contributions, documents on his activities that were collected from newspapers, magazines, papers, etc.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his Korean Med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as argued by himself was examined.

**Results** : After he himself understoo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thoroughly, Jo, Heonyeong interpreted th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by means of general scientific methodology along with simple, common knowledge based explanations. He compared Eastern Medicine with Western Medicine and pursued their integration, while making it his objective to have lay people understand medicine and to receive proper medical care and live healthy liv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a righteous government. The reason for his contributions to lay people targeted mediums and writing Korean Medical books that were easy to comprehend was also because of this philosophy.

**Conclusions** : By making efforts to change and improve reality whether it be medicine or politics, Jo, Heongyeong went beyond treatment of diseases and pursued a world where all people could live healthy lives.

**Key words** : Joheonyeong, Tongsokhaneuhakwollon, Korean Medicine, Eastern and Western Medicine, Japanese colonial era

\* Corresponding Author : Yousang Baik.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July 31, 2019), Revised(August 7, 2019), Accepted(August 7,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通俗漢醫學原論』의 저자인 趙憲泳은 1900년에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988년에 세상을 떠난<sup>1)</sup> 근 현대의 대표적 한의학자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한의계 인물들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반 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특히 趙憲泳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그가 원래 공부하고 추구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한의학을 공부하여 활동하였던 점, 해방 직후에는 한의계보다 주로 정치 활동을 하였던 점, 그리고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여생을 북한에서 보냈던 점 등으로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며 그것마저도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그가 1930년대 漢醫學 부흥 논쟁의 중심에 서서 표면적이기는 하나 東西醫學의 융합을 주장함으로써 한의계 안팎에서 이질적인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한의학을 보수적으로 옹호만 하는 측과 한의학의 핵심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의 양자로부터 모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의 趙憲泳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李鍾馨의 『韓國東醫學史』(1977년)에서 趙憲泳 및 『通俗漢醫學原論』에 대하여 간략히 논평하였으며<sup>2)3)</sup> 『韓國醫藥人名事典』(1991년)에서도 간단한

생애와 저작들을 소개하고 있고<sup>4)</sup>, 북한의 『동의학사전』(1988년)에서도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짧게 기술하고 있는 정도이다<sup>5)</sup>. 2000년대 이후부터 趙憲泳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보고되기 시작하는데, 신창건의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sup>6)</sup>에서 기존 학계의 趙憲泳에 대한 평가가 주로 1930년대 漢醫學 부흥 논쟁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임을 비판하고 이른바 정치적 의학사상으로 趙憲泳의 활동과 사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창건의 주장대로 주로 학계에서는 漢醫學 부흥 논쟁에 대한 연구 중에서 趙憲泳을 다루어 왔는데, 임병목의 '1930년대 한의학 부흥 논쟁'(1996년)<sup>7)</sup>, 정근식의 '일제하 서양의료체계의 체계모니 형성과 동서의학 논쟁'(1996년)<sup>8)</sup>, 신동원의 '1930년대 한의의 근대성 과학성 논쟁'(2000년)<sup>9)</sup>, 여인석의 '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 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2007년)<sup>10)</sup>, 신규환의 '병존과 절충의 이중주'(2007년)<sup>11)</sup>, 전혜리의 '1934년 조선 한의학 부흥 담론에서 나타난 한의학 정체성의 근대적 재구성'(2010년)<sup>12)</sup>, 박윤재의 '1940년

東京留學生會 新幹會 朝鮮語學會 등에서活躍하였고, 1930년대부터 東醫學에 耽溺, 『通俗漢醫學原論』의名著를 내었고, 1934年 東西醫學研究會와 손을 잡아 『東洋醫藥誌』 主筆 등 東醫學 復興運動에 한 때 投身하였다. 光復後 制憲國會議員, 2代 民議員을 지냈으나, 6·25 때 拉北되었다. 그의 뒤를 繼承한 京醫專 出身 姜弼模가 있고, 그에게 師事하여 學의 系譜를 간직한 이로는 盧正祐를 들 수 있겠다.

1)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麗江出版社. 1989. p.738. : 1900년 3월 27일 출생, 1988년 5월 23일 사망으로 되어 있음. 한국위키백과에는 1901년 1월 8일생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로 보인다.  
2)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III-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309. : 『通俗漢醫學原論』(國漢文1卷); 趙憲泳의 著로 1934年10월에 東洋醫藥社에서 出刊되었다. 內容은 陰陽篇 臟腑篇 證候篇 經絡篇 脈學篇 藥理學篇 處方學篇 藥性本草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從來의 東醫學을 科學의 新知識으로 檢討한 最初의 著書이다. 東醫學의 基本原理들을 平易한 文章으로 科學的인 근거를 들어 풀이하여 놓았다. 東醫學에 처음 入門하는 初學者들에게 많은 感銘을 준 책이며, 하나의 啓蒙書로서 貢獻이 컸다.  
3)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III-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312. : 趙憲泳; 1900年 慶北英陽胎生으로 1927年에 日本早大 英文科 卒業, 在

4) 柳熙英, 辛民教, 孟雄在. 韓國醫藥人名事典. 서울. 醫聖堂. 1991. pp.99-100.  
5)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麗江出版社. 1989. p.738.  
6)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7) 임병목. 1930년대 한의학 부흥 논쟁. 서울대학교보건의대학원. 1996.  
8) 정근식. 일제하 서양의료체계의 체계모니 형성과 동서의학 논쟁.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문학과지성사). 50. 1996.  
9) 신동원. 1930년대 한의의 근대성 과학성 논쟁(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서울. 역사비평사. 2000.  
10) 여인석. 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 의사학. 2007. 16(2). pp.160-176.  
11) 신규환. 병존과 절충의 이중주. 역사교육. 2007. 101. pp. 227-256.  
12) 전혜리. 1934년 조선 한의학 부흥 담론에서 나타난 한의학 정체성의 근대적 재구성. 서울대학교대학원. 2010. 전혜리.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 - 한의학 정체성의 '근

동서의학논쟁과 의료계의 변화'(2018년)<sup>13)</sup>, 황영원의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2018년)<sup>14)</sup> 등이 그것이다. 趙憲泳에 집중한 연구인 박윤재의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2007년)<sup>15)</sup>에서도 이러한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의학계의 趙憲泳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남일의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2006년)에서도 趙憲泳을 동서의학 절충을 꾀한 인물로 평가하였고<sup>16)</sup> 이충열의 '玄谷 尹吉榮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재 조명'(2009년)에서도 趙憲泳이 어느 정도 절충적 의학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17)</sup>. 이러한 동서의학 절충의 관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趙憲泳의 한의학적 성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와서 시작되고 있는데 김도원의 '조현영의 『婦人病治療法』에 대한 의학적 연구'(2019년)<sup>18)</sup> 정도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趙憲泳이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에 기반하지 않고 1934년을 기점으로 진행된 漢醫學 부흥 논쟁 혹은 동서의학 절충 시도라는 상대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벗어나서, 趙憲泳의 삶과 관련하여 그의 醫學思想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사상을 규명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趙憲泳의 생애를 바탕으로 그 醫學思想을 개괄하는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각각의 저작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향후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趙憲泳은 유학 시절부터 참여해 온 신간회 활동, 조선어학회 활동, 해방 직후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정치 활동 등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이러한 한의학계 밖의 활동들과 관련하여 그의 종합적 사상 - 의학사상 포함 - 에 대한 심층적 고찰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기존 연구에서 근거로 제시한 趙憲泳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에 집중하였으며, 수집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趙憲泳의 醫學思想을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기초 연구는 향후 趙憲泳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II. 本論

### 1. 趙憲泳의 생애 및 주요 활동

#### 1) 출생 이후 한의계 입문까지의 활동

趙憲泳은 1900년 3월 27일에 경상북도 英陽郡 日月面 注谷里 주실마을에서 부친 趙寅錫(1879-1950)의 3남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漢陽, 어려서 본명은 禮慶이며, 자는 應文, 호는 海山이다. 주실마을 漢陽趙氏 집안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朝順大夫 僉議中書事를 지낸 趙之壽가 시조이며 조선 중종14년(1519년) 기묘사화로 죽음을 당한 趙光祖의 후손들이 멸족을 피하기 위하여 전국으로 흩어진 후 가장 큰 일족이 경북 英陽으로 내려와 정착하였고, 다시 그 후손인 趙佐이 인조7년(1629년) 주실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趙憲泳의 조부인 趙承基(1836-1912)는 을미사변 이후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부친인 趙寅錫은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英進義塾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27년에는 신간회 英陽支會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sup>19)</sup>. 趙憲泳은 조부 趙承基와 부친 趙寅錫으로

대적' 재구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011. 33(1), pp.41-89.  
13) 박윤재. 1940년 동서의학논쟁과 의료계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018. 86. pp.215-237.  
14)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15) 박윤재.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 40. pp.118-139.  
16) 김남일.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2006. 15(1). pp.77-105.  
17) 이충열. 玄谷 尹吉榮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재 조명.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 23(4). pp.751-760.  
18) 김도원. 조현영의 『婦人病治療法』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19.

19) 趙憲泳의 가계를 참고로 설명하면, 형인 趙根泳은 경성계 일고보,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시경무국장, 문교부문화국장, 국립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동생인 趙俊泳은 보성고를 졸업하고 해방 후 경

부터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사범부 영문과에 유학하면서 재학 중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25년 3월 1일 3.1운동 기념회에서 사회를 보고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으며<sup>20)</sup> 1926년에는 제일본조선유학생학우회의 회장이 되었고<sup>21)</sup>, 1927년에는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 운동에 참가하여 동년 5월 7일에 동경지회 초대회장이 되었다<sup>22)</sup>. 이후 얼마 안 된 1928년 초에 귀국하여 같은 해 신간회 본부 총무이사를 맡아서<sup>23)</sup> 신간회 전국순회강연에서 강원, 안동, 김천 지방을 담당하였으며<sup>24)</sup>, 부산에서 일어난 일본인 선주와 조선인 어민 사이의 분쟁에 조사단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sup>25)</sup>. 1929년 1월에는 신간회 京城支會 임시대회에서 본부대회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었고<sup>26)</sup>, 동년 6월에는 신간회 全國復代表 전체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출되어<sup>27)</sup> 상무로 활동하였다<sup>28)</sup>. 신간회 경성지회대회의 서기장을 맡기도 하였으며<sup>29)</sup>, 중앙상

무집행위원<sup>30)</sup>의 활동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1931년 5월 신간회 해산 이후에는 한의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趙憲泳이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기록을 살펴보면, 1934년 10월 15일에 東西醫學研究會가 그동안의 부진한 활동을 일신하기 위하여 振興大會를 열고 任員을 개편하게 되는데<sup>31)</sup>, 회장에 金明汝, 부회장에 安孝式, 李明善, 간사 金東薰, 金鍊煥, 金永勳, 趙憲泳, 李元模, 평의원 李世林, 都殷珪, 朴麟緒, 李乙雨 외 24인 등이 선임되었다<sup>32)33)</sup>. 東西醫學研究會는 1910년 한국병합늑약 이후 朝鮮醫師研鑽會, 朝鮮漢方醫師會, 朝鮮醫生會, 全鮮醫會 등을 계승하여 1921년에 공식 설립된 한의계를 대표하는 조직이었다<sup>34)</sup>. 이때의 총회에서 『東洋醫藥』<sup>35)</sup> 잡지의 발간과 漢醫學 教育機關 설치를 결의하였는데<sup>36)</sup>, 趙憲泳은 바로 직후에 발간되는 『東洋醫藥』의 編輯 겸 發行人을 맡게 된다<sup>37)</sup>.

신간회 해산 이후 1934년까지의 사이에 어떻게 한의학을 접하고 한의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해방 후 重刊된 『通俗漢醫學原論』<sup>38)</sup>에 실린 저자의 서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북도경국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을 역임하였고, 趙愛泳은 시조시인으로 활동하였다. 趙憲泳의 차남 趙東卓은 호가 芝薰으로 청록파 시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장남, 장녀 모두 시인이었다.

- 20) 「警察數百名 警戒裡에 宣言朗讀 萬世高唱」 朝鮮日報 1925년 3월 3일자.
- 21) 1926년 1월에 수감 중인 아나키스트 朴烈을 도왔으며(「母子의 面會는 來春으로 延期」 東亞日報 1926년 1월 27일자.), 2월의 재판 때에는 재판장에서 입을 사모관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100년의 뒤안길에서- 朴烈열사 이야기」 朝鮮日報 1999년 11월 19일자.)
- 22) 「新幹支會設置」 東亞日報 1927년 5월 15일자, 「新幹會 東京支會 설립대회」 中外日報 1927년 5월 15일자.
- 23) 「前夜是非도 一掃 會議는 圓滿進行」 中外日報 1928년 7월 16일자, 「地方人事」 中外日報 1928년 9월 7일자.
- 24)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충남.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169.  
李炳憲. 新幹會運動. 新東亞. 1969. 60. p.198. : 강연 내용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다고 함.
- 25)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충남.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166.  
李炳憲. 新幹會運動. 新東亞. 1969. 60. p.206.
- 26)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충남.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p.85-86.
- 27)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충남.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p.69-70.
- 28) 「檢査委員會」 東亞日報 1929년 7월 6일자.
- 29) 「非常한 緊張裡에 質問論戰으로 進行」 東亞日報 1929년

- 1월 21일자, 「新規約 配付 委員도 改選」 東亞日報 1929년 7월 23일자.
- 30) 「新幹委員會召集」 東亞日報 1929년 8월 24일자.
- 31) 「東西醫學研究會 定期總會 開催」 每日申報 1934년 10월 18일.
- 32) 東洋醫藥社. 東西醫學研究會任員. 東洋醫藥. 1935. 1. p.76.
- 33)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III-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295.
- 34) 白裕相. 근현대 韓醫學 高等教育機關의 教育課程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0(4). 2017. pp.127-130.
- 35) 격월로 1935년 5월 1일자 제3호까지 발간되었다.
- 36) 「漢醫에게 教育機關을 設置」 東亞日報. 第4617號. 昭和 9年 10月 19日字 : 결의 내용은 一, 『東洋醫藥』을 발간할 것. 二, 漢醫學教育機關을 設置할 것. 三, 漢方醫學學者의 地位保障 등이었다.
- 37) 鄭智薰. 日帝時代初期 韓醫學術雜誌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2001. p.8.
- 38)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乙酉文化社. 1950. : 1934년 조판본에는 서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가 漢醫學에 관한 著書를 한다는 것은 나自身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三十이 되어서 漢醫學 書를 처음 펴보게 된 것은 그때 우리의 處地가 남달랐고, 大衆醫療가 實로 悲慘한 狀態에 있었으며, 이 大衆醫療에 가장 貢獻이 많고 偉大한 功效가 있는 漢醫學이 날로 衰頹해가는 것이 愛惜하고 憂慮되어 그 復興에 微力を 보태려고 한 것이며, 그 結果가 이 冊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문에서 신간회 활동의 말기인 30세 즈음에 와서야 비로소 漢醫學을 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39)</sup>. 신창건은 趙憲泳이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면서 이미 漢醫學을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sup>40)</sup>, 조선시대 전통 있는 가문에서 의학을 습득하여 가족들에게 자가 치료를 했던 경우가 많았으므로 趙憲泳의 경우도 어려서부터 韓醫學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 간행된 『동의학사전』에는 25살부터 자습의 방법으로 한의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고 되어 있다<sup>41)</sup>. 아무튼 자신의 본래 전공 분야와 전혀 다른 한의학을 매우 짧은 시기에 전문적인 수준까지 빠르게 흡수해 간간 것은 확실하다.

당대 한의학의 대가였던 金永勳의 『晴崗醫鑑』 회고록을 보면, 1932년에 청년 趙憲泳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이미 東醫學에 조예가 깊었고 설명하는 논리가 현대적이어서 단번에 귀가 트일 정도였다고 한다<sup>42)</sup>. 예를 들어 음양론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동의 치료방법의 과학적 설명에서 모두 나무랄 데 없는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경 유학 시절부터 한의학과 침술에 밝아서 이를 통하여 학비를 충당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신간회 활동 무렵부터 한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또한 趙憲泳이 한의학에 입문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신간회 해산 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신책으로 한의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일설에는 趙憲泳이 일본 유학 이후 귀국 후에 지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였다고도 한다<sup>44)</sup>.

그런데 趙憲泳은 1932년 5월 20일에 창립된 朝鮮理療會의 초대 회장을 맡게 되는데<sup>45)</sup> 여기서 理療라는 것은 鍼灸 및 약물을 포함하는 자극을 통한 치료를 통칭하는 것이지만, 그가 주창해온 民衆醫術을 대신하는 개념이기도 하였다. 理療에서 사용되는 자극의 대부분은 침구 및 물리치료이지만 약물도 체질에 따라서 유용한 자극이 될 수도, 유해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약물치료도 자극 치료의 일부로 보았다. 이와 같이 한의학과 물리요법을 망라하여 폭넓게 ‘자극’을 해석한 것은 민중들이 손쉽게 의술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계몽운동의 목적 때문이었다. 또한 朝鮮理療會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의계에 속하지 않은 李光洙, 曹晚植, 俞鎮泰 등 신간회와 조선어학회 활동을 한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趙憲泳은 이미 신간회가 해산된 직후부터 한의계 밖에서 의료계몽 활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종합해 보면, 조헌영이 본격적으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기는 대략 1928년경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로 볼 수 있다.

1934년 10월에 새로 개편된 東西醫學研究會에서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東洋醫藥』의 창간이었는데, 趙憲泳의 제언에 따라 이 잡지가 창간되었으며<sup>46)</sup> 본인이 직접 編輯 겸 發行人을 맡게

39) 楊禮壽 著, 조헌영, 태창득, 리성희, 김동일 譯. 醫林撮要 (國譯韓醫學大系5). 서울. 海東醫學社. 1999. : 趙憲泳에 대한 인물소개에서도 30세 때부터 자습으로 동의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고 하였다.  
40)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120.  
41)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 麗江出版社. 1989. p.738.  
42)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2001. p.500.

43)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2001. p.502.  
44) 조광렬. 나의 할아버지 조헌영 어른과 형제분들. 조지훈 문학동산. 2017. [cited on July 10, 2019]; Available from: URL: [http://m.cafe.daum.net/krcho45/VP0T/29?q=D\\_6Yyoqc24i850](http://m.cafe.daum.net/krcho45/VP0T/29?q=D_6Yyoqc24i850) : 집안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趙憲泳이 일본 유학시절 친해진 여성 독립운동가 김재량이 당시 폐결핵 말기로 고생을 하자 귀국 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45) 「朝鮮理療會創立 民衆醫療研究機關」 東亞日報 1932년 5월 20일자.  
46)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2001.

된다. 대한제국 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까지 한의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들은 대체로 金永勳과 같이 官醫 출신이거나 아니면 개항 이후 초기 한의학의 계몽에 힘썼던 洪鍾哲과 같이 오래 동안 민간에서 임상 의사로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한의학의 배경이 없었던 趙憲泳은 東西醫學研究會 개편과 『東洋醫藥』의 창간을 계기로 이후 여러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강습회에서 강연을 하며, 신문 및 잡지에 많은 칼럼을 기고하는 등 한의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趙憲泳이 당시 한의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1934년에 벌어진 한의학 부흥 논쟁 또는 한의학 과학화 논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47)(48)(49). 한의학 부흥 논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제는 일제강점기 초기의 탄압 정치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한계에 다다른 것을 깨닫고 이후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의학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를 단지 침구치료만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는 정책을 바꾸어, 성분 중심의 약리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한약의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상황 변화의 이유를 학계에서는, 당시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을 야기하게 될 확전의 준비와 악화되는 경제 여건, 의료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찾고 있다(50).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실제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나 한의사 면허의 인정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적인 변화는 미미하였다. 단,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한의학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었다.

p.503.

47) 임병목. 1930년대 한의학 부흥 논쟁. 서울대학교보건의학연구원. 1996.  
48) 정근식. 일제하 서양의료체계의 헤게모니 형성과 동서의학 논쟁.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문학과지성사). 50. 1996.  
49) 신동원. 1930년대 한의학 근대성 과학성 논쟁(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서울. 역사비평사. 2000.  
50)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003. 12(2). p.126.

1934년 2월 16일자부터 朝鮮日報에 張基茂가 漢方醫學의 復興策을 연재하였는데, 張基茂는 關 漢城醫學講習所의 3회 졸업생으로 1908년 최초의 의사단체인 韓國醫事研究會의 창립회원이며 1915년 漢城醫師會 창립의 발기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51). 張基茂는 기고문에서 漢方醫學 復興策으로 集團의 必要, 術語의 整理, 研究所設置, 醫育問題, 學術報道 機關 등을 제시하였다(52). 이에 대하여 敬聖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개업의로 있던 鄭權陽이 1934년 3월 9일자부터 朝鮮日報에 반론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李乙浩, 趙憲泳 등이 논쟁에 가세하였다(53). 1934년 한 해에 걸친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은 張基茂였으나 이후 논쟁을 주도한 인물은 趙憲泳이었다. 이후 東西醫學研究會에서 자체 발간한 『東洋醫藥』와 東亞日報, 新東亞, 中央時報 등에 趙憲泳, 李乙浩, 申佶求, 姜弼模 등의 한의학 부흥 논쟁에 대한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기고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1942년에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54)이

51) 조헌영 외, 정근식 해석, 박석준, 최종덕 보론.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서울. 조합공동체소나무. 1997. pp.21-22.  
52)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296.  
53) 1년에 걸친 朝鮮日報 지면 상의 논쟁은 張基茂의 「漢方醫學 復興策」(1934.2.16.), 鄭權陽의 「張基茂氏의 所論을 읽고」(1934.3.9.-), 李乙浩의 「綜合醫學 樹立의 前提」(1934.3.15.-), 張基茂의 「鄭權陽氏의 提言에 答함」(1934.4.19.-), 趙憲泳의 「東西醫學의 比較批判의 必要」(1934.5.3.-), 鄭權陽의 「趙憲泳氏의 漢醫學論을 評함」(1934.7.13.-), 趙憲泳의 「漢醫學論에 對하여 鄭權陽氏의 評을 읽고」(1934.10.19.-)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54) 趙憲泳의 저, 朴季祚 편.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全州. 全北漢醫藥組合. 1942. : [목차] 漢方醫學 復興策-張基茂(朝鮮日報, 1934.2.16.-) / 張基茂氏의 所論을 읽고-鄭權陽(朝鮮日報, 1934.3.9.-) / 綜合醫學 樹立의 前提-李乙浩(朝鮮日報, 1934.3.15.-) / 鄭權陽氏의 提言에 答함-張基茂(朝鮮日報, 1934.4.19.-) / 東西醫學 比較批判의 必要-趙憲泳(朝鮮日報, 1934.5.3.-) / 趙憲泳氏의 漢醫學論을 評함-鄭權陽(朝鮮日報, 1934.7.13.-) / 鄭權陽氏의 評을 읽고-趙憲泳(朝鮮日報, 1934.10.19.-) / 醫學概念에 대한 吾人의 態度-李乙浩(東洋醫藥, 1935.1.1.) / 陰陽五行說에 對하여-趙憲泳(東亞日報, 1935.3.8.-) /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趙憲泳(新東亞, 1935.10.1.) / 漢醫學界의 新機運-申佶求(東亞日報, 1936.2.29.-) / 新醫學의 發展과 漢醫學의 今後-趙憲泳(中央時報, 1937.8.) / 洋醫가 본 漢醫學-姜弼模(東亞日報, 1937.10.12.-) / 科學的으로 본 漢方醫學-趙憲泳(방송강연, 1940.2.21-22.) / 本書刊行에

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의학 부흥 논쟁이 일어난 1934년의 말에 趙憲泳은 자신의 대표 저작인 『(應用自在)通俗漢醫學原論』<sup>55)</sup>을 출간하게 된다<sup>56)</sup>. 『通俗漢醫學原論』은 해방 후에도 한의학 입문자들에게 베스트셀러로 널리 읽혀져서 최근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재 간행되고 있다<sup>57)</sup>.

## 2) 기고, 강연 및 저술 활동

趙憲泳은 이미 1932년 朝鮮理療會를 창립할 당시부터 대중매체에 한의학 관련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 해 『民衆保健과 理療法』(朝鮮日報 3월)<sup>58)</sup>, 『봄을 타는 이는 이리케 하시오』(東亞日報 5월) 등을 연재하였다. 1933년 초에는 朝鮮理療會 명의로 「가정에서 필요한 진단법과 치료법」(每日申報 1월)을 연재하였다. 약 1년간의 공백기 이후 1934년에는 「東西醫學의 比較批判의 必要」(朝鮮日報 5월), 「陰陽說의 理論과 實際」(朝鮮日報 5월-6월), 「臟腑論의 新研究」(朝鮮日報 6월-7월), 「漢醫學論에 대하여 鄭勤陽씨의 평을 읽고」(朝鮮日報 10월-11월) 등을 연재하였다.

1935년에는 자신이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東洋醫藥』이 1월부터 5월까지 제3호를 발간한 이후 폐간되었는데, 이 잡지에서 「漢方脈學의 新研究」(1월, 3월, 5월), 「本草藥理學과 嘗百草以制藥說」(1월), 「李濟馬四象醫論抄錄」(1월, 3월)<sup>59)</sup>, 「漢藥法製(修治)는 왜하는가」(3월)<sup>60)</sup>, 「本草藥理學과 氣味論」(3월),

「(張介賓)景岳全書演義」(3월, 5월)<sup>61)</sup>, 「疾病의 原因」(5월)<sup>62)</sup> 등을 연재하였다. 「漢方脈學의 新研究」라는 글에서는 脈學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本草藥理學과 嘗百草以制藥說」, 「本草藥理學과 氣味論」, 「漢藥法製(修治)는 왜하는가」 등에서는 氣味論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修治法을 사용하는 범위와 간략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張介賓)景岳全書演義」에서는 張景岳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그 이론이 精簡明確하여 현대의 과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정리 소개하게 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李濟馬四象醫論抄錄」의 해제에서는 李濟馬에 대하여 중국에서 온 것을 盲從墨守하는 폐단을 벗어나 독자적 견해를 가지고 신학설을 제창한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疾病의 原因」에서는 病因을 내적,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도식화하였다.

1935년에는 대중 일간지와 잡지에 「여자의 냉증은 왜생기나」(東亞日報 1월), 「陰陽五行說에 對하여 天台山人의 蒙을 啓함」(東亞日報 3월), 「신경쇠약」시리즈(朝鮮日報 5월), 「妊婦는 왜 신 것을 조하하나」(東亞日報 6월), 「가짜하다가는 더위를 먹습니다」(東亞日報 7월), 「장질부사는 그러케도 무서운 병인가 민간치료법과 예방법」(東亞日報 9월),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新東亞』 10월), 「四象醫學에 對하여」(『新東亞』 10월)<sup>63)</sup>, 「胃腸病의 漢方療法」(『新東亞』 11월), 「肺病의 漢方治療法」(『新東亞』 12월) 등을 연재하였다.

1936년에는 「감기는 만병의 근본 예방과 치료법」(東亞日報 1월), 「長壽에 대한 漢醫養生法」(『新東亞』

際하여-朴季祚 / 附 醫藥品及衛生資料生産配給統制規則 (조선총독부법령제72호, 1942.3.25.)

55) 趙憲泳. (應用自在)通俗韓醫學源論. 京城. 東洋醫藥社. 1934. : 해방 후 重刊 때에는 '應用自在'라는 부제가 삭제된다.

56) 李鍾馨은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298.)에서 『東洋醫藥』이 제3호(1935.5.1.)를 끝으로 停刊된 이후에 『通俗漢醫學原論』을 저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東洋醫藥』 창간 이전에 간행되었다.

57) 해방 후 乙酉文化社, 醫門社, 眞玄, 學林社, 學園社 등의 출판사들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58) 정확한 발행 월일은 부록의 연표를 참고하기 바람. 이하 모두 동일함.

59) 趙憲泳은 저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자신의 호를 따라서 '海山生'이라고 표기하였다.

60) 趙憲泳은 본 글의 필명을 이름의 한글 이니셜을 따라서 '丈〇'이라고 표기하였다.

61) 趙憲泳은 본 글의 필명을 고향 英陽의 日月山을 지명을 따라서 '日月山人'이라고 표기하였다.

62) 趙憲泳은 본 글의 필명을 이름의 이니셜을 따라서 '丈生'이라고 표기하였다.

63) 趙憲泳은 단일 잡지 내에서 저자 표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고향의 日月山의 명칭을 따라서 '明岷'이라고 표기하였다. '明岷'은 '日月山民'을 축약한 것으로 1935년 『東洋醫藥』에 기고한 글에서도 '日月山人'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다.

』1월), 「잡난애기들의 간기(肝氣)는 어떤 병인가」(東亞日報 2월), 「農村家庭의 常備漢藥과 簡易治療方」(『新東亞』 2월), 「불면증은 왜 생기나 원인과 치료방법」(東亞日報 3월), 「生殖泌尿排便의 異常과 漢方療法」(『新東亞』 3월), 「임신 만흔 봄철에 낙태는 어떠한 막을가」(東亞日報 4월), 「神經衰弱症의 原因과 療法」(『新東亞』 4월), 「失血症의 治療法」(『新東亞』 5월), 「젊은이들의 정신이상 원인과 치료방법」(東亞日報 8월), 「東洋과 西洋의 對照 목은 問題의 새로운 吟味」(朝鮮日報 10월) 등을 연재하였다.

1937년에는 「人蔘과 鹿茸 왜 靈藥이라 하는가」(東亞日報 6월), 「우승 듯하면서 맘 놓수 없는 각기와 부증」(東亞日報 9월), 「이 절기에 제일 만흔 감기와 토사증」(東亞日報 9월), 「잘못하면 죽는 토사의 증상」(東亞日報 9월), 「날이 치우면 만하지는 허리아픈 증세」(東亞日報 10월) 등을 연재하였고, 1938년에는 「이번 겨울에 유행하는 감기의 치료법」(東亞日報 2월), 「일은 봄부터 만히 나는 중이염 치료법」(東亞日報 2월), 「사탕통계를 통해서 본 폐결핵환자」(東亞日報 7월), 「백약이 무효하다는 백일해의 치료법」(東亞日報 9월), 「겨울이 되면 고생하는 해수천축 치료법」(東亞日報 12월) 등을 연재하였다. 1939년에는 대중매체의 기고가 줄어서 東亞日報에 「한방으로 본 발진지부스 원인과 예방치료법」(東亞日報 4월), 「부인병에 제일 만흔 화와 냉의 증세」(東亞日報 11월) 등을 연재하였을 뿐이다. 그 대신 이 시기에 漢方 전문 잡지에 꾸준히 기고를 하였는데 『漢方醫藥』, 『東洋醫藥』 등에 게재되었다. 『漢方醫藥』은 1935년부터 간행된 『忠南醫學』이 1937년 1월부터 명칭을 바꾸어 1942년 제50호까지 발행된 잡지이다. 여기에 실린 趙憲泳의 글 전체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忠南醫學』에 「本草藥理學과 氣味論」(1935년 12월), 「漢方脈學의 新研究」(1936년 1월 20일), 「胃腸病의 療法」(1936년 3월, 5월), 「肺病治療에 관한 몇가지」(1937년 1월 20일), 『漢方醫藥』에 「神經衰弱症 治療法」(1938년 8월, 9월, 10월), 「痢疾의 證과 治療」(1939년 8월), 「痔疾의 證과 治療」(1939년 9월), 「婦女의 火와 冷」(1940년 1월), 「小兒病治療

法(二)」(1942년 11월) 등을 기고하였다. 또한 1939년 7월에 창간된 東洋醫藥協會의 『東洋醫藥』<sup>64)</sup> 제3호에는 「洋醫學徒의 漢方醫學觀」(『東洋醫藥』 9월)이 게재되었다.

1940년대 초부터는 종합 대중 잡지인 朝鮮春秋社의 『春秋』에 주로 기고하였는데, 「性格과 運命」(1941년 3월), 「體質과 性格」(1941년 6월), 「李聖鳳, 趙憲泳 對談 - 東西醫學上으로 본 長壽強壯의 秘訣」(1941년 11월), 「肺病의 豫防과 治療」(1942년 10월-1943년 2월), 「鄉藥集成方의 重刊을 보고」(1943년 3월), 「胃腸病의 攝養과 治療」(1943년 3월-6월), 「假死 이야기」(1943년 7월), 「神經衰弱症의 原因과 治療」(1943년 9월-11월), 「婦人病의 攝養과 治療」(1944년 1월-8월) 등이 그것이다.

한편 趙憲泳은 한의계 외에도 朝鮮語學會의 활동도 하였는데, 1935년 8월에는 조선어표준어 査定委員會 第二讀會에 경상도 대표로 참여하여<sup>65)</sup> 修正委員 선정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sup>66)67)</sup>. 또한 192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42년경까지 추진된 『조선어대사전(우리말큰사전)』 편찬에서 한의학 전문 주해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sup>68)</sup>. 이러한 과정에서 1934년에 조선중앙일보에 「한글統一案의 批判과 修正」(朝鮮中央日報 10월)이라는 글을 연재하였으며, 1935년 6월에도 朝鮮語學會의 『한글』에 「小異를 버리고 韓語統一案을 支持하자」를 기고하였고<sup>69)</sup>, 1938년에는 東亞日報에 「말은 思想即生活이다 語彙를 琢磨하라」(東亞日報 1938년 1월)를 기고하였다.

64) 한의계가 일본 東洋醫道會의 요청과 주선으로 總督府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1939년 4월에 東洋醫藥協會를 창립하고 동년 7월 13일에 출판부에서 『東洋醫藥』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935년 東西醫學研究會에서 발행한 『東洋醫藥』과 구별된다.

65) 「朝鮮語標準語 査定第二讀會開催」 毎日申報 1935년 8월 5일자, 「標準語査定會 朝鮮中央日報 1935년 8월 6일자.

66) 「標準語査定 二讀會原案通過」 朝鮮中央日報 1935년 8월 11일자.

67) 박용규.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서울. 한글학회. 2012. pp.72-74.

68)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p.270.

69) 趙憲泳. 小異를 버리고 韓語 統一案을 支持하자. 韓語. 3(5). 1935. pp.310-312.



그밖에 趙憲泳은 1928년에 朝鮮敎育協會의 평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sup>70)</sup>. 또한 茶山 丁若鏞의 의학에 대하여 1935년 1월 『新朝鮮』에 「醫學上으로 본 茶山先生」이란 글을 기고하였고, 다시 동년 7월 朝鮮日報에 「漢醫學上으로 본 茶山醫學의 特色」으로 기고하였으며, 이는 동년 8월 朝鮮通信<sup>71)</sup>에 「漢醫學より見た茶山醫學の特色」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의사들이 만든 대중잡지인 『大衆醫學』 4월호에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sup>72)</sup>. 그밖에 趙憲泳 자신의 수필로는 「戀愛 結婚 新婚」(『新東亞』 1936년 7월), 「公開 못하는 어제 낮 꿈」(東亞日報 1938년 7월), 「나와 讀書」(『春秋』 1942년 9월) 등이 있다.

趙憲泳은 1935년 『東洋醫藥』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전국 각지의 講習會에 金永勳과 함께 참석하여 漢醫學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東洋醫藥』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sup>73)</sup> 동년 1월 동안 全州通俗漢醫學講話<sup>74)</sup>, 忠南醫生講習會<sup>75)</sup>, 忠南藥種商講習會<sup>76)</sup> 등에서 강연을 하였다. 또한 동년 5월 26일에는 朝鮮漢藥業組合 정기총회에서 의학강연을 하였고<sup>77)</sup> 12월 19일부터는 咸南醫生講習會를 개최하여 강연하였다<sup>78)</sup>. 1936년 4월 2일에는 元山醫藥組合 후원 元山基督靑年會 개최 東西醫藥講座에서 강연하였으

며<sup>79)</sup>, 동년 4월 18일에는 通俗漢醫學講演會를 개최하여 「漢方醫學에서 본 現代病」을 강연하였고<sup>80)</sup> 이는 계속 이어져 1939년 11월 1일에도 通俗漢醫學講座가 개최되었다<sup>81)</sup>. 1939년 2월 2일-7일에는 全州에서 개최된 漢醫藥講習會에서 강연하기도 하였다<sup>82)</sup>. 이러한 강연의 인기로 힘입어 1936년에는 鄭殷采가 趙憲泳을 초빙하여 대전에 大成醫學講習所를 설치하여 5월에 입학식을 하였는데<sup>83)</sup> 이후 시설 및 교육체계 미비로 趙憲泳이 퇴직하자 7월에 학생 분규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였다<sup>84)</sup>.

현장의 강연회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한의학 내용을 강연하였는데 1942년에 간행된 『漢醫學의 批判과 解説』에는 1940년 2월 21일과 22일에 방송강연을 한 「科學적으로 본 漢方醫學」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sup>85)</sup>, 같은 해 3월 22일에 「先哲의 養生訓」을 방송한 기록이 있다<sup>86)</sup>.

趙憲泳의 저서를 살펴보면, 朝鮮日報 지면상의 한의학 부흥 논쟁이 마무리 된 1934년 12월에 자신의 대표 저작인 『(應用自在)通俗漢醫學原論』<sup>87)</sup>을 출간하였고, 언론 및 잡지에 발표된 글 가운데 한의학 임상

70) 「朝鮮敎育協會에서 定期總會開催」 東亞日報 1928년 6월 18일자.  
71) 1926년부터 발행된 朝鮮思想通信이 개칭한 일본어 신문으로 한국 각 분야의 소식을 일본에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72) 「新刊紹介」 東亞日報 1939년 4월 13일자.  
73) 東洋醫藥社. 本誌 創刊後 漢醫藥界의 動向. 東洋醫藥. 1935. 3. p.70.  
74) 「漢醫學講演 全州藥令市主催」 東亞日報 1935년 1월 15일자. : 全州藥令市 주최로 1935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75) 忠南道衛生課, 大田漢醫藥業組合 주최로 1935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으며, 金永勳과 함께 강연하였다.  
76) 忠南道衛生課, 大田漢醫藥業組合 주최로 1935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金永勳과 함께 강연하였다. 每日申報 1935년 1월 27일자에는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77) 「漢藥組合總會 醫學講演도 있어」 東亞日報 1935년 5월 26일자.  
78) 「藥令開催機會 醫生講習實行」 每日申報 1935년 11월 20일자.

79) 「元山 初 開講의 東西醫藥講座」 朝鮮日報 1936년 4월 1일자, 「元山基靑 主催로 東亞醫藥講座」 東亞日報 1936년 4월 2일자. : 「東亞」는 「東西」의 誤記로 보인다.  
80) 東亞日報 1936년 4월 18일자, 김남일. 근현대한의학인물실록. 경기도. 들녘. 2011. p.334. : 동서의학연구회 주최, 東亞日報 후원으로 趙憲泳, 金永勳, 申佶求 등이 강사로 나서 通俗漢醫學講演會를 열기도 하였다  
81) 「(광고)通俗漢醫學講座」 東亞日報 1939년 11월 1일자. : 동서의학연구회 주최, 東亞日報社學藝部 후원으로 1939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성기독교청년회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金鍊煥도 강사로 참여하였다.  
82) 「漢醫藥講習會 全州에서 開催」 每日申報 1939년 1월 31일자.  
83) 「漢醫講習所 大田鄭氏가 設置」 每日申報 1936년 4월 12일자, 「大成醫學講習所 去六日入學式」 每日申報 1936년 5월 8일자.  
84) 「個人的 私利 探치 말고 公共團體로 變更要求」 東亞日報 1936년 6월 22일자, 「問題의 大成醫學 又復 波瀾惹起」 朝鮮中央日報 1936년 7월 4일자.  
85) 趙憲泳의 저, 朴季祚 편. 漢醫學의 批判과 解説. 全州. 全北漢醫藥組合. 1942. pp.165-181.  
86) 「放送프로-講演」 東亞日報 1940년 3월 22일자.  
87) 趙憲泳. (應用自在)通俗韓醫學源論. 京城. 東洋醫藥社. 1934. : 해방 후 重刊 때에는 「應用自在」라는 부제가 삭제된다.

에 필요한 내용을 모아서 『民衆醫術療法』(1935년)<sup>88)</sup>,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1937년)<sup>89)</sup>, 『神經衰弱症治療法(心氣證治)』(1938년)<sup>90)</sup>,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1939년)<sup>91)</sup>,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1941년)<sup>92)</sup> 등의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특히 이들 5종의 서적은 해방 후 1955년에 杏林書院에서 한정판으로 각각 重刊되었다가 1963년에 합본으로 묶여서 『東洋醫學叢書 : 五種』<sup>93)</sup>으로 간행되었다. 또한 1937년에는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物質文明은 어데로』<sup>94)</sup>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한편 1942년에는 朴季祚가 1930년대 중반 이후 한의학 부흥 논쟁 관련 논설들을 모아서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sup>95)</sup>을 간행하였다.

趙憲泳은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체되고 나서 1932년 金永勳을 만난 이후부터 대략 1934년까지의 시기에 서울 낙원동에 東洋醫藥社를 설립하여 『(應用自在)通俗漢醫學原論』, 『民衆醫術療法』 등을 출간하였다. 이후 東洋醫藥社는 관훈동으로 옮겨져서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 『神經衰弱症治療法(心氣證治)』을 출간하였고, 다시 명륜동을 옮긴 이후에는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 등을 출간하였다. 1936년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日月書房은 팔판동(또는 인사동)에 위치하였고 대표는 趙憲泳의 차남으로 청록과 시인인 趙芝薰(본명은 東卓)이었는데, 이곳에서 『物質文明은 어데로』가 출간되었다. 그밖에 東洋醫藥社에서 『傷寒新論』, 『良方集解』, 『東醫診斷學』 등을 출간 예정이었으나 실제 출간되지는 않았다.

신창건은 일제강점기 말기 趙憲泳의 한의계 내 행적에 대하여, 당시 주요 기관인 京畿道醫生會와

京畿道醫生講習所 등의 기록에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sup>96)</sup>. 또한 趙憲泳이 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동원이 제기한 1940년대 한의계 어용화의 경향<sup>97)</sup>을 받아들이면서, 趙憲泳이 이러한 어용화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의계의 어용화 경향은 아직 정설이 아니며<sup>98)</sup>, 또한 趙憲泳은 단지 한의계 공식 기관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뿐 1945년 8월 해방 직전까지 임상진료를 지속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대중 매체와 잡지 등에 계속 발표하였다. 한의계 공식 기관에서 활동한 것은 1934년 10월 東西醫學研究會가 개편된 때의 짧은 기간 동안 뿐이었다. 단, 해방이 가까워 오면서 국내의 사정에 의하여 본래의 정치 활동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으며<sup>99)</sup>, 실제 해방 직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전념하였으므로 이후 한의계 내의 공식적인 활동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 3) 해방 이후의 활동

해방 직후 趙憲泳은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 사무차장을 맡고 원세훈과 함께 조선민족당 수립에 참여하였다가 1948년 9월에 韓國民主黨 결성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韓國民主黨 지방부 부장을 맡게 된다. 1946년 2월에는 大韓民國非常國民會議 후생위원이 되며 동년 11월에 韓國民主黨 상임위원, 1947년 1월에는 반탁독립투쟁회 중앙집행위원, 동년 10월에는 韓國民主黨의 중책인 조직부장

88) 趙憲泳. 民衆醫術療法. 京城. 東洋醫藥社. 1935.

89) 趙憲泳.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7.

90) 趙憲泳. 神經衰弱症治療法(心氣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8.

91) 趙憲泳.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9.

92) 趙憲泳.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41.

93) 趙憲泳. 東洋醫學叢書 : 五種. 서울. 杏林書院. 1963.

94) 趙憲泳. 物質文明은 어데로. 京城. 日月書房. 1937.

95) 趙憲泳의 저, 朴季祚 편.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全州. 全北漢醫藥組合. 1942.

96)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p.125-126.

97)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003. 12(2). pp.123-125.

98) 당시 京畿道醫生會가 日本 東洋醫道會와 협력한 것은 總督府로부터 東洋醫藥專門學校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道衛生局과 교섭하여 약재 배급의 권리를 받아낸 것도 협회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한의계의 어용화 경향은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99)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監. 서울. 成輔社. 2001. p.504. : 해방 후 趙憲泳이 本心인 정계로 복귀하였다고 하여 정치에 뜻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되었다<sup>100</sup>). 대체적으로 중도우익의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1948년 5월 10일 총선에서 민족진영(애국단체연합회대표자연석회의)의 단일 후보로 경북 영양군에서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에는 헌법기초위원 등을 맡았으며, 특히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추진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반민족행위처단법을 견제하는 담화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하였다. 1948년 10월 韓國民主黨을 탈당한 이후 우익과 더욱 등을 돌리게 되어, 1948년 12월에는 친일경찰 노덕술 등에 의한 반민특위 위원들과 정부요인의 암살계획이 폭로되기도 하였고<sup>101)102)</sup>, 1949년 6월에는 폭도들이 경북 영양군의 趙憲泳 본가에 침입하여 가옥을 전소시키고 금품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져 이 과정에 경찰 및 주민 등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sup>103)</sup>. 1948년 10월 韓國民主黨을 탈당한 이후 잠시 民主國民黨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다시 탈당한 후 趙憲泳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회를 개원한지 일주일도 못되어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 동안 趙憲泳은 납북되어 이후로 남한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趙憲泳은 제헌국회 활동 기간 동안 국회의원 중에서 368회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이었으며<sup>104)</sup> 헌법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면

서 민주주의 헌법 수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sup>105)</sup>, 남녀동등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여성의 권한 신장을 주장하였다<sup>106)</sup>.

또한 趙憲泳은 국민의료법 제정 과정에서 1950년 2월에 한의사제도를 배제한 洋醫단일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여 무산시키기도 하였다<sup>107)</sup>. 1944년 일제강점기에 공포된 朝鮮醫療令이 해방 후 여전히 효력을 가진 상황에서 당시 보건부는 한의사가 배제된 保健醫療行政法安을 文教社會委員會에 제출하였는데 전국적으로 11만명이 서명한, 漢方醫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라는 진정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趙憲泳의원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이 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sup>108)</sup>. 趙憲泳이 납북된 이후 1951년에 비로소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다. 이 무렵 한의계 활동으로는 1949년 10월 12일 대구에서 동양의학 재건을 위한 강습회에 고문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sup>109)</sup>.

해방 후 趙憲泳이 남한에서 활동한 시간은 몇 년 밖에 되지 않으나 그의 저서는 널리 유행되었다. 가장 유명한 『通俗漢醫學原論』은 해방 후 1950년에 乙酉文化社에서 重刊되었으며 지금까지 醫門社, 眞玄, 學林社, 學園社 등의 출판사를 거치면서 간행되어 현재까지 애독되고 있다. 또한 윤구병이 『通俗漢醫學原論』에 주해를 달고 『한방이야기』로 서명을 바꾸어 1987년에 간행하였다<sup>110)</sup>.

일제강점기 동안 간행되었던 『民衆醫術療法』<sup>111)</sup>,

100)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126.  
101)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128.  
102) 노덕술 등이 독립운동가 출신의 백민태에게 사주하여 암살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나 심경의 변화를 느낀 백민태가 조현영, 김준연 의원에게 음모 내용을 제보하였다.  
103) 「趙議員本宅 被襲 燒失」 東亞日報 1949년 6월 9일자.  
104) 「얼마나 發言했나」 부인신문 1950년 5월 13일자, 「壇上生活二年 병어리議員13名也」 東光新聞 1950년 5월 14일자, 「중언된 의단생활」 商工日報 1950년 5월 13일자. 「選良들 發言 몇 번?」 漢城日報 1950년 5월 13일자에는 378회로 되어 있다.

105) 서희경. 현대한국헌정과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수논총. 2007. 28(2). p.95, p.97.  
106)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와센터법학. 2017. 9(1). p.74.  
107) 대한한의사협회역사편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사 (1898-2011). 서울. 유천문화사. 2012. pp.97-98.  
108) 정기용, 박왕용, 이종열. 1951년 국민의료법 한의사 제도 입법 과정. 대한한의학회지. 2010. 31(1). p.114.  
109) 「東洋醫學 再建企圖 講習會를 開設」 嶺南日報 1949년 10월 14일자.  
110) 조현영 저, 윤구병 주해. 한방이야기. 서울. 學園社. 1987. : 이후에 다시 『통속한의학원론 :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한의학의 명저』(조현영 저, 윤구병 주해. 서울. 학원사. 1999.)의 서명으로 출간되었다.  
111) 趙憲泳. 民衆醫術療法. 京城. 東洋醫藥社. 1935.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sup>112)</sup>, 『神經衰弱症治療法(心氣證治)』<sup>113)</sup>,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sup>114)</sup>,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sup>115)</sup> 등은 각각 1955년에杏林書院에서 한정판으로 重刊되었고, 이를 다시 합본하여 1963년에 『東洋醫學叢書：五種』<sup>116)</sup>이 간행되었다. 또한 1942년에 한의학 부흥 논쟁의 글들을 모아 간행되었던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sup>117)</sup>은 1957년 杏林書院에서 重刊되었고, 정근식의 해설과 박석준, 최중덕의 보론을 덧붙여서 1997년에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sup>118)</sup>로 다시 출간되었다. 『海山隨筆集』, 『議會演說集』 등은 아직 미간 상태이다.

趙憲泳과 『通俗漢醫學原論』에 대한 의학적 평가는 1977년에 간행된 李鍾馨의 『韓國東醫學史』에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sup>119)</sup><sup>120)</sup>, 1991년 간행된 『

韓國醫藥人名事典』<sup>121)</sup>과 1999년 간행된 『東洋醫學大辭典』<sup>122)</sup>에는 趙憲泳의 저작들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趙憲泳에 대한 인물사적 접근을 한 연구 성과로는 신창건의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sup>123)</sup>이 있으며, 동서절충적 관점에서 趙憲泳을 바라본 박윤재의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sup>124)</sup>도 있다.

趙憲泳이 남한에서 한의계에 몸담았던 시기가 대략 1930년대 초반부터 1950년까지의 약 20년 동안인데, 많은 기고와 강연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이 후학들에게 계승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 李鍾馨의 『韓國東醫學史』에서는 京城醫學專門學校 출신의 姜弼模가 趙憲泳을 계승하였고, 盧正祐가 師事하여 계보를 이었다고 하였다<sup>125)</sup>. 姜弼模는 학교 졸업 후 한의학을 공부할 때에 趙憲泳의 『通俗漢醫學原論』을 읽었다고 회고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sup>126)</sup>, 반면에 盧正祐는 자신의 저서인 『韓國醫學史』<sup>127)</sup>에서 趙憲泳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양자 간의 師承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해방 후 한의과대학에서 韓方生理學을 연구하였던 尹吉榮도 젊은 시절에 『通俗漢醫學原論』을 읽고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sup>128)</sup>, 이후 그가 한의학의 현대화에 노력한 점도 趙憲泳의 입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

趙憲泳은 광복 이후 주로 정치 활동에 주력하였는데 이 시기에 언론 및 잡지에 기고한 글들도 대부

- 112) 趙憲泳.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7.
- 113) 趙憲泳. 神經衰弱症治療法(心氣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8.
- 114) 趙憲泳.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9.
- 115) 趙憲泳.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41.
- 116) 趙憲泳.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 杏林書院. 1963.
- 117) 趙憲泳의 저, 朴季祚 편.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全州. 全北漢醫藥組合. 1942.
- 118) 조현영 외, 정근식 해설, 박석준, 최중덕 보론.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서울. 조합공동체소나무. 1997.
- 119)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309. : 『通俗漢醫學原論』(國漢文1卷); 趙憲泳의 著로 1934년10월에 東洋醫藥社에서 出刊되었다. 內容은 陰陽篇 臟腑篇 證候篇 經絡篇 脈學篇 藥理學篇 處方學篇 藥性本草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從來의 東醫學을 科學의 新知識으로 檢討한 最初의 著書이다. 東醫學의 基本原理들을 平易한 文章으로 科學的인 근거를 들어 풀이하여 놓았다. 東醫學에 처음 入門하는 初學者들에게 많은 感銘을 준 책이며, 하나의 啓蒙書로서 貢獻이 컸다.
- 120)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312. : 趙憲泳; 1900年 慶北英陽胎生으로 1927년에 日本早大 英文科 卒業, 在東京留學生會 新幹會 朝蘇語學會 등에서 活躍하였고, 1930년대부터 東醫學에 耽溺, 『通俗漢醫學原論』의 名著를 내었고, 1934年 東西醫學研究會와 손을 잡아 『東洋醫藥誌』 主筆 등 東醫學 復興運動에 한 때 投身하였다. 光復후 制憲國會議員, 2代 民議員을 지냈으나, 6·25 때 拉北되었다. 그의 뒤를 繼承한 京醫專 出身 姜弼模가 있고, 그에게 師事하여 學의 系譜를 간직한 이로는 盧正祐를 들 수 있겠다.

- 121) 柳熙英, 辛民教, 孟雄在. 韓國醫藥人名事典. 서울. 醫聖堂. 1991. pp.99-100.
- 12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p.151.
- 123)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가편찬위원회. 2005.
- 124) 박윤재.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 40. pp.118-139.
- 125)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p.312.
- 126) 박윤재. 1930~1940년대 강필도의 한의학 인식과 과학화론. 역사와현실. 2014. 94. pp.466-467.
- 127) 盧正祐. 韓國醫學史(韓國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8.
- 128) 이충열. 玄谷 尹吉榮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재조명.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 23(4). p.752.

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것들이었다. 1947년 1월부터 5월까지 『再建』에 「嶺南騷擾의 真相原因對策」, 「國立서울大學校案과 學生盟休에 對하여」, 「右翼陣營의 行動統一을 強調함」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고,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1948년 6월과 9월 京鄕新聞에 각각 「憲法制定에 臨한 私案」, 「國際聯合과 韓國獨立-大西洋憲章의 精神을 想起하라」 등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9월에도 『海東公論』에 「大韓民國憲法論」을 발표하였다. 1949년 5월과 10월에는 東亞日報에 각각 「議政壇上의 一年回顧」, 「國民會運營엔 愼重(上)」을, 동년 5월 『새한민보』에 「美國撤退와 國內輿論」, 8월 『民聲』에 「알타協定과 極東暗雲」, 8월과 11월 서울신문에 각각 「건국1년의 업적(정계편)」, 「和戰 兩樣의 態勢」, 9월 『新天地』에 「北大西洋同盟과 太平洋同盟」, 11월 『國會報』에 「國會와 政府」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1950년에는 1월에 『民聲』에 「歸屬財産은 어떻게 處理되나」, 8월과 11월 서울신문에 각각 「건국1년의 업적(정계편)」, 「和戰 兩樣의 態勢」, 『新天地』에 「現政府에 對한 나의 要望」 등을 각각 발표하였고, 2월 『民族文化』에 「國內政界의 回顧와 展望」, 4월 東亞日報에 「民族의 重大危機」를 발표하였다. 정치적 주제 이외의 기고로는 1949년 10월 『民族文化』에 「民族精神理念과 그 昂揚方法論」의 좌담 내용이 실렸고, 1950년 漢城日報에 당시 文壇을 비판한 「權力에 屈從阿附 清廉한 節操 없다」가 게재되었다.

북한으로 납북된 이후에 趙憲泳은 정치 활동보다는 주로 한의학 연구 및 임상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평양의과대학 동의학부 교수를 지냈으며<sup>129)</sup> 동의학 연구소 소장으로 연구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sup>130)</sup>. 1965년에 동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sup>131)</sup>,

과학연구와 임상 치료에 힘썼으며 특히 심장병에 대한 뜸 치료법 등 가치 있는 치료법들을 개발하였다고 한다<sup>132)</sup>. 『동의처방학』, 『동의용어사전』 등을 집필하였고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 등 고전 의서들을 번역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sup>133)</sup>. 국내에서 『醫方類聚』 국역본은 1991년에 간행되었고<sup>134)</sup>, 趙憲泳이 金東日 등과 번역한 『東醫寶鑑』은 1994년에<sup>135)</sup>, 조선시대 楊禮壽의 『醫林撮要』 번역서도 1999년에 각각 간행되었다<sup>136)</sup>. 남북 후 임상 진료뿐만 아니라 다수 醫書의 번역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배운 한학의 소양을 바탕으로 평소에 醫書 독해에 매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의학 이외 분야의 활동으로는 1956년에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이 된 이후 1988년 사망 직전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의 서기장까지 맡아서 일하였으며<sup>137)</sup>, 1971년 1월부터 1972년 2월까지의 북조선 국가원수 겸 국무원수상에 하 朝鮮東洋醫學科學特報秘書官으로 활동하였다<sup>138)</sup>. 1988년 5월 23일 사망 때에는 북한으로부터 적십자사를 통하여 소식을 알려왔으며, 평양시 삼석구역에 있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특별묘지에 안장

1966년에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였으나, 『동의학사전』(김동일 외 4인. 서울. 여강출판사. 1989. p.738.)에서는 1965년이라고 하여 후자를 따랐다.

129) 김남일. 근현대한의학인물실록. 경기도. 들녘. 2011. p.333.

130) 조광렬. 나의 할아버지 조현영 어른과 형제분들. 조지훈 문학동산. 2017. [cited on July 10, 2019]; Available from: URL: [http://m.cafe.daum.net/krcho45/VPOT/29?q=D\\_6Yyoqc24i850](http://m.cafe.daum.net/krcho45/VPOT/29?q=D_6Yyoqc24i850)

131) 조현영, 학위를 받고나서. 조국. 1. 1966. p.40. : 신창건의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149.)에서는

132)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p.738.

133)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p.738. : 북한에서 번역한 『醫林撮要』(楊禮壽 著, 조현영, 태창득, 리성희, 김동일 譯. 國譯韓醫學大系5. 서울. 海東醫學社. 1999.)의 인물 소개 부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134) 북한의학과학원동의학연구소.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1991.

135) 許浚 著, 趙憲泳, 金東日 외 10인 譯. 東醫寶鑑1-5. 서울. 여강출판사. 1994.

136) 楊禮壽 著, 조현영, 태창득, 리성희, 김동일 譯. 醫林撮要(國譯韓醫學大系5). 서울. 海東醫學社. 1999.

137)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p.738.

138) 조현영. 위키백과. 2002. [cited on July 10, 2019]; Available from: URL: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D%97%8C%EC%98%81>

되었다<sup>139)</sup>.

납북 이후 趙憲泳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향후 납북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납북 이후 趙憲泳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였다.

## 2. 趙憲泳의 醫學思想

趙憲泳의 의학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글에서는 그의 대표 저작인 『通俗漢醫學原論』에 나오는 ‘本著의 主眼’(凡例)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 범례에서 趙憲泳은 漢醫學의 근본 원리 이해, 과학적 태도의 설명 방식, 상식적이며 흥미를 유발하는 간명한 해설, 漢醫 각과의 학설을 비교 비판, 논리는 실제경험을 토대로, 漢醫學과 洋醫學을 비교 조화, 民衆醫術化에 노력 등의 7가지 추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1) 東西醫學의 비교와 조화

이 가운데 우선 漢醫學과 洋醫學의 비교 조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1920년대의 침체기 속에서 한의계는 한방피병원 설립과 전염병치료 권한 확보 등에 대해 노력하였고<sup>140)</sup> 서양의학을 수용하여 공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한의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東西醫學研究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1920년대 후반 식민당국의 한의학 장려로의 정책 전환<sup>141)</sup> 속에서 醫學講習所의 교육을 강화하며 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서양 의학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한의학 부흥을 시도하였다. 1934년 10월 東西醫學研究會의 개편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 개항 이후 도입된 서양

의학이 빠른 속도로 주류의학으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한의학이 서양 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다<sup>142)</sup>. 일제강점기 초기에도 朝鮮醫師研鑽會의 新舊醫學講習所와 洪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 등에서 이미 서양 의학을 수용하여 교육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sup>143)</sup>. 예를 들어 洪鍾哲의 『經絡學總論』(1922년)은 12경락의 순행과 삼음삼양 경기의 흐름 등 한의학 내용을 설명하면서 ‘人體形’ 부분에는 서양 해부 지식을 바탕으로 解剖臟器圖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의생제도의 성립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서양 의학 지식에 대한 습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1924년에 東西醫學研究會가 의생시험 합격을 위하여 발간한 『東西醫學要義』(도진우, 1924년 4월)는 식민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한의계 중심으로 저작된 교재였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醫方綱要』(1917년)와 『朝鮮衛生要義』(1918년) 등이 단순히 해부학 및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 의학의 기초 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과 달리, 『東西醫學要義』는 각 편을 동서의학으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양자 간의 결합을 중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趙憲泳은 동서의학을 비교한 후 조화를 시도하였는데, 1930년대 중반 한의학 부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당시에 한의계의 모든 의견이 이와 같지는 않았다. 朝鮮日報에 「綜合醫學 樹立의 前提」의 글을 기고하였던 李乙浩는 동서의학의 융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趙憲泳은 1934년 5월 3일에 朝鮮日報에 기고한 「東西醫學의 比較批判의 必要」에서 동서의학을 2분법적으로 비교하면서, 양자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144)</sup>. 이러한 접근이 『通俗漢醫學

139) 신준영. 평양시 신미리 재북동협 특설모지. 민족21. 2002. 7. pp.20-23.  
140)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p.129.  
141)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pp.191-212. : 전반적인 의료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약연구 및 약초재배 장려운동이 진행되었다.

142) 白裕相. 근현대 韓醫學 高等教育機關의 教育課程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0(4). 2017. p.134. : 종합해보면, 大韓帝國은 漢醫, 西醫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의사면허제도를 만들고, 통합된 의학 교육기관에서 漢醫의 소양을 바탕으로 서양 의학을 적극적으로 습득한 의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143) 白裕相. 근현대 韓醫學 高等教育機關의 教育課程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0(4). 2017. pp.134-142.  
144) 『通俗漢醫學原論』에 ‘東洋醫學과 西洋醫學의 任務’라는

原論』에서는 우선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나 임상치료의 효능들에 대응하여 서양의학의 지식들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相火를 부신수질의 adrenaline에 비유하여 심장의 박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相火가 君火를 보좌하는 작용이라고 본 것이다<sup>145)</sup>.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대응 관계를 넘어서 趙憲泳은 사람의 삶을 영양(개체보전), 생식(생명연장), 투쟁(목적달성) 등으로 분할하고 각각에 腑[脾], 腎, 肝을 배속하여 足三陰의 경락체계와 연결시켰다<sup>146)</sup>. 이러한 체계 속에서 다시 腎은 내분비, 생식, 비뇨 관련 호르몬의 기능과 연결되며 여기에 命門, 膀胱, 子宮 등이 결합된다. 즉, 趙憲泳은 한의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해석한 이후에 현대의학의 지식들과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趙憲泳은 朝鮮理療會의 의료계몽 활동 이후 출간한 『民衆醫術理療法』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理療法の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sup>147)</sup>.

그러나 萬一 이 治療法을 科學的 根據가 없고 詆毀하여 그 實行과 普及를 妨害하는 者가 있거나 또는 病者 自身이 이 治療法에 對한 信念이 弱해서는 안 되겠으므로 不得已 多少間 科學的 論證과 學理的 解說을 試한 것이다.

理療法을 近來에 많이 流行하는 物理療法으로 單純히 解釋하는 이가 있는 듯하나 物理療法에 局限된 것이 아니요 心理療法도 되고 生理療法도 되고 物理療法도 되고 化學療法도 된다. 다시 말하면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동서의학을 각각 종합치료 의술과 국소처치 의술, 자연치료 의술과 인공치료 의술, 조직의학과 현상의학, 정체의학과 동체의학, 治本의학과 治標의학, 방어의술과 양생의술, 내과의학과 외과의학, 확일주의와 응변주의, 귀족의술과 평민의술, 官用의술과 民用의술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145)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學林社. 1983. p.40 : 相火와 아도레나린. 漢醫學上 '相火'는 腎中之火를 意味하는 것인데 相火가 君火를 動하게 한다고 한다. 君火는 곧 心臟이니 心臟의 活動에 依하여 體溫이 維持 增減되기 때문에 火라고 한 것이다. 副腎에서 아도레나린이 分泌되면 그것이 心臟의 搏動을 強大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相火動君火'로 볼 수 있다.

146)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學林社. 1983. pp.152-155.

147) 趙憲泳. 民衆醫術理療法. 京城. 東洋醫藥社. 1935.

그 基礎를 心理學, 生理學, 生物物理學, 生物化學에 둔 가장 合理的인 自然療法이다. 肉體方面은 西洋의 自然科學으로 究明하고 生命現象은 東洋의 哲學的 方面으로 觀察하여 綜合的으로 自然의 理法에 適合한 治療를 하는 것을 『理療法』이라고 命名한 것이다.

生은 刺戟에 依하여 營爲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治療도 刺戟에 依하지 않을 수 없다. 治療는 體表刺戟에 의한 外治와 體內刺戟에 의한 內治 두 方面이 있으니 外治法은 本篇에 說述하였고 內治法 卽 藥餌療法에 대해서는 『通俗漢醫學原論』에 詳述하였다.

부득이하게, 과학적 논증과 학리적 해설을 시도하기는 하나 한의학학을 포함하는 理療法이 합리적 자연요법이므로 자연히 心理學, 生理學, 生物物理學, 生物化學 등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육체방면에 대한 서양 자연과학적 규명과 생명현상에 대한 동양철학적 관찰이 종합된 自然의 理法에 적합한 치료가 곧 '理療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自然의 理法은 곧 구체적인 '자극'으로 요약 표현되며, 이 자극의 개념 속에 한의학과 물리요법, 인체의 생리와 병리가 모두 망라된다. 自然의 理法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의학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표면적으로 清末 唐宗海<sup>148)</sup>, 張錫純<sup>149)</sup> 등의 中西匯通 운동과 유사해 보이나, 단순히 한의학의 내용이 서양의학의 그것과 상통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서양의학에 빚대어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趙憲泳의 이러한 생각은 해방 후 한의학의 현대화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 초기 한의과대학에서 韓方生理學 연구를 이끌었던 尹吉榮은 젊은 시절에 『通俗漢醫學原論』을 읽고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sup>150)</sup>, 그의 '韓方生理學의 方法論

148) 동서의학 滙通을 시도한 대표적 의가로 『中西滙通醫經精義』, 『金匱要略淺注補正』, 『傷寒論淺注補正』, 『本草問答』, 『血證論』 등의 5가지 저작은 『中西滙通醫書五種』이라 함칭하여 1884년에 간행되었다.

149)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함께 공부하여 『醫學中參西錄』을 저술하였으며, 中西醫學의 학술적 결합을 추구하여 서양의약을 중의학 方劑에 가하여 쓰기도 하였다.

研究<sup>151)</sup>와 『東醫學의 方法論研究』<sup>152)</sup>에 나타난 서양의학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의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趙憲泳의 입장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서양의학의 생리학을 재해석하여 한의학의 五運六氣 및 藏象 등의 체계와 결합하려고 했던 시도<sup>153)</sup>로도 이어졌다.

임상 부분에 있어서는 『東洋醫學叢書：五種』<sup>154)</sup>에서 한의학의 證治를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洋診漢治’의 부분을 별도로 두어 실용적으로 현대적 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병명을 나열한 후, 각각에 대하여 손쉬운 변증 방법이나 통치방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앞부분에서 제시한 證治의 각론을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각 질병별로 임상에서 유효한 證治와 연결시킨 것이 특징이다.

趙憲泳이 추구했던 동서의학의 비교 및 조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학술적 평가는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하며, 그가 비록 한의학의 가치를 중시 하였으나 또한 전체적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공존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趙憲泳은, 한의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앓거나, 한의학의 가치를 무조건 옹호하면서 표면적으로만 서양의학을 접목하여 단순히 대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양자 각각의 특성이 매우 뚜렷하여 서로 접합점이 없다고 보는 등의 태도가 실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본 것이며, 동서의학의 특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접목해 나가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 2) 한의학 原理의 증시

趙憲泳은 또한 『通俗漢醫學原論』 범례의 서두에서 漢醫學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과학적 태도로서 이를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趙憲泳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하였다고 평가된다. 『通俗漢醫學原論』은 陰陽, 臟腑學, 證候學, 經絡學, 脈學, 藥理學(本草學 原理), 處方學 등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제목에서 ‘原論’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같이 한의학의 기본적인 주요 지식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저술의 목적을 한의학 교육에 둔 교과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通俗漢醫學原論』 체계의 특징을 간단히 언급해 보면, 우선 陰陽의 개념을 한의학 전반의 지식을 운용하는 큰 대강을 삼고 있으며 五行은 五主와 五臟 등 인체의 구조와 기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趙憲泳은 1935년 3월 東亞日報에 기고한 「陰陽五行說에 對하여」에서, 고루한 음양오행설을 한의계에서 다루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하여 당시 일본생리학회에서 음양오행설의 학술적 근거를 발표한 것 등을 제시하면서 음양오행설을 단순한 신비주의로 보는 것을 배척하였으며, 정반합의 변증법 및 현대의학의 생물, 화학, 물리학, 생리학 등 지식들을 특히 음양설과 연결시켜 서로 부합됨을 설명하였다<sup>155)</sup>. 이와 같이 음양오행설을 인류 사회와 우주 만유 현상의 통제적 법칙으로 보면서도 그 가운데 음양을 한의학 이론 및 실천의 대강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證候學에서 味, 色, 감정 등을 중시한 것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脈學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설명한 것은 진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한 것으로 기본 진단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藥理學 부분에서는 유기화학을 바탕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氣, 味, 色을 통하여 중

150) 이충열. 玄谷 尹吉榮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재조명. 동의생리학회지. 2009. 23(4). p.752.

151) 尹吉榮. 韓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 大韓漢醫學會報. 1966.

152)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153) 金完熙. 신생리학총론. 서울. 경희대학교한방생리학교실. 1972.

154) 趙憲泳.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 杏林書院. 1963.

155) 조현영 외, 정근식 해설, 박석준, 최종덕 보론. 漢醫學의 批判과 解説. 서울. 조합공동체소나무. 1997. pp.169-179.



합적으로 약물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處方學 부분에서는 틀에 맞추어진 기성방과 秘方의 형식을 비판하고 진단을 통하여 증후에 따라 방제를 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四象醫學에 대해서는 1935년 1월 『東洋醫藥』에 실린 「李濟馬四象醫論抄錄」의 해제에서 자신이 사상의학을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李濟馬가 중국의학에서 벗어나 자기의 독자적인 신학설을 주창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체질이 반드시 네 가지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였다. 역시 동년 10월에 『新東亞』에 게재된 「四象醫學에 對하여」에서는 四象 유형이 배타적으로 분류되어 성립될 수 있는지, 유형별 성격의 변동과 변화가 심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간단히 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였다. 四象醫學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무조건 어떠한 학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탐구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趙憲泳은 특정 학파에 심취하여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한의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골고루 다루면서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려고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독학으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특정 학파에 소속되지 않은 점,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운 한학의 소양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한 것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임상 치료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 『東洋醫學叢書：五種』를 살펴보면, 『東醫寶鑑』, 『景岳全書』 등의 처방을 주로 사용하면서 『中醫學辭典』에 수록된 처방 및 자신이 개발한 처방들을 추가하였다. 이미 趙憲泳은 1935년 『東洋醫藥』에 실린 「景岳全書演義」에서 張景岳의 이론이 精簡明確하여 현대의 과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八陳法 등 명확한 이론과 분류에 기반 한 처방 운용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中醫學辭典』이란 謝觀의 『東洋醫學大辭典』<sup>156)</sup>을 말한다. 이와 같이 특정 학파에 속하지는 않

으면서 조선 후기부터 유행하였던 『景岳全書』의 처방을 활용하였고 또한 당시 전래된 中醫學의 처방까지 검토한 것은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趙憲泳은 실제 東洋醫藥社를 설립하여 임상진료와 연구 및 출판 활동을 지속하면서 위와 같은 저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 3) 의학의 실용성과 民衆醫術

凡例에서 상식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간명한 해설을 하였다라는 것은 실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철저히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사선택하여 책을 저술한 것과 연결되며 나아가 民衆醫術화에도 관련이 있다. 어려운 한의학 내용을 현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요약이 이루어져 간명해질 수 있는데, 현실의 접목이란 곧 자신 스스로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임상진료의 내용을 종합한 『東洋醫學叢書：五種』의 체제를 보면, 부인병, 위장병, 폐병, 신경쇠약증 등 각각에 대해서 우선 병증의 특징과 한방치료의 주안점을 밝히고 있으며, 치료 시 곤란한 점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證治에서도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임상에서 다빈도로 치료하게 되는 증후나 질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處方도 실제 사용하여 효과를 경험한 것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의학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한 이유는 전문가인 한의사 또는 한의학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며 이를 스스로 ‘民衆醫術化’라고 하였다.

民衆醫術화의 배경에 대해서는 신창건의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sup>157)</su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창건은 식민지기 한국사회가 여러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한 맥락 위에서 趙憲泳에 주목하고, 기존의 학계에서 趙憲泳을 한의학 부흥논쟁의 주도자로서만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신창건은 趙憲泳의 의학사상을 소위 ‘정치적 의학사상’으로

에서는 1938년에 杏林書院에서 간행되었다.

157)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15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 商務印書館. 1921. : 국내

규정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다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趙憲泳은 신간회 해산 후 스스로 東洋醫藥社를 개설한 이후 의학계몽활동을 하였는데, 1935년에 간행된 『民衆醫術理療法』<sup>158)</sup>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醫藥의 社會化, 醫療術의 常識化는 全人類의 共通된 要求이며 우리에게는 더욱이 그 要求가 切實하지 않을 수 없다.

著者が 일찍이 이에 着眼하여 民衆醫療術研究에 留意한지 數年만에 이 治療法을 얻어서 漸來 그 普及에 努力해 오던 바 그 效果가 實로 期待以上으로 偉大하여 醫藥費를 負擔기 어려운 貧寒한 病者, 鄉村의 病者들에게 醫療施設의 不足을 補充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現代醫藥으로 治療하지 못하는 慢性的 難病이 治療되며 疲勞의 恢復, 生理作用의 自然的 調整 等に 奇効가 있어서 強健術로도 優秀한 것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理療法는 누구든지 自己 손으로 容易히 實行할 수 있고 조금도 危險이 없으며 費用은 全然 안 들거나 極히 少額으로 能히 治療의 效果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러한 治療法을 하루 바빠 一般에 普及시키기 爲하여 이 小冊子를 만든 것이다.

醫術의 目的은 疾病의 治癒, 健康의 恢復增進에 있다. 病者의 要求하는 것은 學理的 說明보다 健康의 恢復 그것이다. 그리고 事實은 어떠한 理論보다도 權威 있는 것이니 우리가 여러 번 實驗하여 實際에 그 治療의 效果를 確認하게 된다면 우리는 迅速히 그 療法를 利用할 것 뿐이다.

의약의 사회화와 의료술의 상식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스스로 민중의료술을 연구해 왔으며, 그 목적은 누구든지 자신 손으로 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위험도 없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 가난한 사람이나 멀리 떨어진 외지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의료의 시행을 보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35년 『新東亞』에 발표한 「農村家庭의 常備藥과 簡易治療法」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sup>159)</sup>.

158) 趙憲泳. 民衆醫術理療法. 京城. 東洋醫藥社. 1935.

간단한 의학지식을 보급하여 일반인들이 스스로 치료를 하도록 지도하는 목적은 『東醫寶鑑』의 서문에서 “窮村僻巷無醫藥, 而夭折者多, 我國鄉約多產, 而人不能知爾. 宜分類並書鄉名, 使民易知.”라고 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의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한 것과 상통한다. 단, 의학상식의 보급을 통한 의료계몽과 전문적인 의학치료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趙憲泳은 1935년 『新東亞』에 발표한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에서 解放主義와 嚴選主義의 병행을 언급하면서, 누구나 한의를 연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배타적 면허제도에는 반대하되, 직업적으로 한의약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격적, 학술적으로 철저히 자격을 검증해야 하고, 이에 비하여 일반한의는 민간요법 치료사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60)</sup>.

#### 4) 王道主義 의학의 추구

신창진은 趙憲泳을 식민시기 의학 아카데미즘의 권위자였던 수기하라 노리유끼(杉原德行, 京城帝國大學醫學部藥理學第二講座教授)에 비교하면서, 趙憲泳의 民衆救濟 의지는 패도주의를 타파하고 평화와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왕도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학의 패러다임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았다. 1935년에 10월에 『新東亞』에 기고한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61)</sup>.

醫學에도 文武王霸가 있으니 攻瀉는 武斷의이고 霸道며 補養은 文化的이고 王道다. 그 時代生活이 物質의 繁榮을 崇尚하여 財利와 權勢를 貪내서 生存競爭이 劇烈한 霸道의 時代에는 必然的으로 醫學도 攻瀉方面에 主力하게 되는 것이오 醜惡慘酷한 物質的 爭奪戰에 疲勞하여 精神生活에 治重하고 清廉을 崇尚하며 平和를 愛好하는 王道의 時

159) 趙憲泳. 農村家庭의 常備藥과 簡易治療法. 新東亞. 6(2). 1936. pp.163-169.

160) 趙憲泳.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 新東亞. 5(10). 1935. p.145.

161) 趙憲泳.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 新東亞. 5(10). 1935. p.142.

代에는 醫學도 必然的으로 補養을 힘쓰게 된다.

즉,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식민화는 물질적 이득과 권력을 탐하는 霸道主義에서 나온 것이며 이로 인하여 민중들은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같은 기고문의 말미에 漢醫學의 發展策을 제시하면서 儒醫制度의 부활을 주장한 것<sup>162)</sup>은 과거 전통으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王道主義에 기반하여 민중들을 고단하고 아픈 삶으로부터 구제하는 의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王道란 ‘王天下之道’의 준말로 모든 만민들을 고르게 아끼고 보살피는 방도를 말하는 것으로, 趙憲泳의 民衆醫術化와 맥락이 닿아 있다. 반대로 霸道主義란 위정자가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金永勳의 『晴崗醫鑑』에서 趙憲泳이 한의학에 투신한 이유 중 하나로 신간회 해산 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신책을 들었으나<sup>163)</sup>, 단순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신념이 漢醫學의 특성과 일치함을 깨닫고 한의학을 통하여 民衆救濟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400년 가까이 내려온 경복 영양의 대표적 전통 가문에서 어려서 수학한 儒學의 사회관과 도덕론이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에 발표한 『物質文明은 어데로』<sup>164)</sup>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물질문명시대와 정

신문명시대로 양분하고 당시의 식민지 상황이 바로 현대 물질문명의 소산이라고 보았으며, 정치적으로는 다수합의에서 소수독재로, 文治에서 武治로 악화된 결과로 보았다<sup>165)</sup>.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정신문명시대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도,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간의 상호 전화 속에서 양자의 특색을 정확히 알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당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물질문명의 폐단으로 인하여 야기된 식민지체제가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또한 趙憲泳은 왕도주의 구현의 방법론에 있어서 보편적 과학주의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였던 한의학의 과학화는 맹목적으로 과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신비주의적 요소나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를 부정하는 편견들을 모두 불식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의계에서 한창 활동할 당시인 1935년에 趙憲泳은 조선어학회 표준어 사정위원도 담당하였으며, 이때 발표한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의 글에서는 한글 통일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수적 관념을 가진 자, 규칙을 싫어하는 자, 어렵다는 것, 자기 의견과 주장에 틀린다는 것, 자기의 주장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 남의 하는 일을 시기하는 자, 妄自尊大하는 無識漢,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등의 여러 부류로 나누어 논박하고 있는데<sup>166)</sup>,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趙憲泳이 추구한 民衆醫術化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조선의 왕정체제에서 근대 시민 중심 사회로 순조롭게 전환되지 못한 채 강제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체제로 넘어오게 된 상황에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발전의 중심에 민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으며, 趙憲泳이 유학 시절부터 학생운동과 신간회 활동에 적

162) 趙憲泳.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 新東亞. 5(10). 1935. p.145. : 이것은 漢醫에 대한 解放主義와 嚴選主義의 並行이나 從來와 같이 儒醫制度를 復活하여 누구든지 漢醫를 研究利用할 수 있도록 하고 特別 職業的으로 漢醫 藥業에 從事할 사람에게는 人物의 證衡과 學術的 考試를 하되 人物의 證衡은 地方官廳으로 하여금 그 地方에서의 人格的 信望을 報告케하고 學術考試는 漢醫學專門學中에서 考試委員를 選定케하여 漢醫學術로서 考試케하는 것이 當연하다. 이 考試에 合格된 醫家에 對하여는 醫師와 同樣으로 社會的으로 制度上으로 그 醫學的 權考를 認證하여 民衆의 信任을 두텁게 할 것이요 그들에게 醫業을 獨點시킬 必要는 없다. 그리고 一般漢醫에 對하여는 近來 盛行하는 各種 民間療法의 治療師와 同一程度로 取扱하여 不正不美한 일이 없도록 嚴格한 取締規定을 設하고 地方官廳에서 屆出許可制를 採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163)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2001. p.502.

164) 趙憲泳. 物質文明은 어데로. 京城. 日月書房. 1937.  
165) 趙憲泳. 物質文明은 어데로. 京城. 日月書房. 1937. pp.1-4.  
166) 趙憲泳.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한글. 3(5). 1935. pp.310-312.

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한의학계에 들어와 한의학 부흥에 힘쓴 것도 이러한 민중 중심 사상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趙憲泳이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상에 있으며, 민족주의에 기반 한 우익 성향의 韓國民主黨에 입당하였다가 곧바로 반민족,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탈당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승만의 정치에 반대한 것도<sup>167)</sup> 패권에 대하여 민중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結論

그동안 海山 趙憲泳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그 행적과 의학사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윤곽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유학생살부터 식민지 조국의 해방과 발전에 꿈을 품고 있었으며, 그 바탕에는 민중을 애호하는 왕도주의의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고 짐작된다. 귀국 후 신간회가 해산되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였을 때에 한의학에 투신하여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학술적 연구와 임상 치료의 방면에서 모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한의학의 핵심적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현실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학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려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대표적 저작인 『通俗漢醫學原論』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趙憲泳은 먼저 漢醫學의 근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그 핵심 내용을 철저히 자신이 임상 현실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이를 다시 보편타당한 과학적 방식과 상식적인 간명한 해설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한의학의 陰陽五行, 臟腑學, 證候學, 經絡學, 脈學, 本草學, 處方學 등 각 방면의 핵심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그 의미들을 재해석한 후 서양의학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167) 신창건.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127.

또한 이 모든 과정은 민중이 의학을 이해하고 의학의 혜택을 받아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소위 民衆醫術化에 최종 목적이 있었다. 동서 의학의 비교와 융합을 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상에서 나온 것으로, 단순히 양자 간의 형식적 통합이나 어느 한편의 이득을 위한 보완적 병합을 추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식민지 상황을 지나친 물질문명이 가져온 폐단의 결과로 인식한 것은 현대 의료환경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실마리를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 이외에 정치와 의학을 구분하지 않고 넘나들며 현실의 변화와 개선에 매진하였던 그의 삶 자체를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의학의 본질이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감사의 글

『忠南醫藥』, 『漢方醫藥』 등에 실린 趙憲泳의 기고문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제공해주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김남일교수님과 재단법인아단문고에 감사드립니다.

### References

1. 國史編纂委員會. 資料大韓民國史. 서울. 大韓民國文敎部. 1968.
2. 金完熙. 신생리학총론. 서울. 경희대학교한방생리학교실. 1972.
3. 김남일. 근현대한의학인물실록. 경기도. 들녘. 2011.
4. 김남일. 醫書의 刊行을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2006. 15(1).
5. 김도원. 조현영의 『婦人病治療法』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19.
6. 김동일 외 4인. 동의학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7.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監. 서울. 成輔社. 2001.
8.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와젠더 법학. 2017. 9(1).
9. 김희곤 외. 영양의 독립운동사. 영양. 영양문화원. 2006.
10. 김희곤 외 5인. 경북독립운동사IV. 대구. 영남사. 2013.
11. 盧正祐. 韓國醫學史(韓國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8.
12. 대한한의사협회역사편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사(1898-2011). 서울. 유천문화사. 2012.
13. 東光新聞. 光州. 宣美峰.
14. 東亞日報. 서울. 東亞日報社.
15. 東洋醫藥社. 東西醫學研究會任員. 東洋醫藥. 1935. 1.
16. 東洋醫藥社. 本誌 創刊後 漢醫藥界의 動向. 東洋醫藥. 1935. 3.
1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辭典(9).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18. 柳熙英, 辛民教, 孟雄在. 韓國醫藥人名事典. 서울. 醫聖堂. 1991.
19. 每日申報. 朝鮮總督府.
20. 박용규. 조선어학회 항일투쟁사. 서울. 한글학회. 2012. pp.72-74.
21. 박운재. 1930~1940년대 조현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결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 40.
22. 박운재. 1930~1940년대 강필모의 한의학 인식과 과학화론. 역사와현실. 2014.
23. 박운재. 1940년 동서의학논쟁과 의료계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018. 86.
24. 白裕相. 근현대 韓醫學 高等教育機關의 教育課程 분석.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0(4). 2017.
25. 부인신문. 서울. 부인신문사.
26. 북한의학과학원동의학연구소.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1991.
27.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 商務印書館. 1921.
28. 商工日報. 서울. 任永信.
29. 서희경. 현대한국헌정과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수논총. 2007. 28(2).
30. 신규환. 병존과 절충의 이중주. 역사교육. 2007. 101.
31. 新東亞. 서울. 東亞日報社.
32. 신동원. 1930년대 한의의 근대설 과학성 논쟁(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서울. 역사비평사. 2000.
33.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003. 12(2).
34.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충남. 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35. 신준영. 평양시 신미리 재북통합 특설묘지. 민족21. 2002. 7.
36. 신창진.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김성근 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37. 楊禮壽 著, 조현영, 태창덕, 리성희, 김동일 譯. 醫林撮要(國譯韓醫學大系5). 서울. 海東醫學社. 1999.
38. 여인석. 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 의사학. 2007. 16(2).
39. 嶺南日報. 大邱. 嶺南日報社.
40.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41. 尹吉榮. 韓方生理學의 方法論研究. 大韓漢醫學會報. 1966.
42. 李炳憲. 新幹會運動. 新東亞. 1969. 60.
43. 李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7.
44. 이충열. 玄谷 尹吉榮의 「漢方生理學의 方法論 研究」 재 조명.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 23(4).
45. 임병목. 1930년대 한의학 부흥 논쟁. 서울대

- 학교보건대학원. 1996.
46. 전혜리. 1934년 조선 한의학 부흥 담론에서 나타난 한의학 정체성의 근대적 재구성. 서울대학교대학원. 2010.
47. 전혜리.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 - 한의학 정체성의 '근대적' 재구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011. 33(1).
48. 정근식. 일제하 서양의료체계의 헤게모니 형성과 동서의학 논쟁.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문학과지성사). 50. 1996.
49. 정기용, 박왕용, 이충열. 1951년 국민의료법 한의사 제도 입법 과정. 대한한의학회지. 2010. 31(1).
50. 鄭智薰. 日帝時代初期 韓醫學術雜誌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2001.
51. 朝鮮日報. 서울. 朝鮮日報社.
52. 朝鮮中央日報. 呂運亨.
53. 朝鮮日報. 서울. 朝鮮日報社.
54. 조현영 외, 정근식 해석, 박석준, 최종덕 보론.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서울. 조합공동체소나무. 1997.
55. 조현영 저, 윤구병 주해. 통속한의학원론 :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한의학의 명저. 서울. 학원사. 1999.
56. 조현영 저, 윤구병 주해. 한방이야기. 서울. 學園社. 1987.
57. 조현영, 학위를 받고나서. 조국. 1. 1966.
58. 趙憲泳. (應用自在)通俗韓醫學源論. 京城. 東洋醫藥社. 1934.
59. 조현영. 동방의학의 중용성과 그 발전 전망에 대하여. 조선과학원통보. 3. 1957.
60. 趙憲泳. 東洋醫學叢書 : 五種. 서울. 杏林書院. 1963.
61. 趙憲泳. 物質文明은 어디로. 京城. 日月書房. 1937.
62. 趙憲泳. 民衆醫術理療法. 京城. 東洋醫藥社. 1935.
63. 趙憲泳.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41.
64. 趙憲泳.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한글. 3(5). 1935.
65. 趙憲泳. 神經衰弱症治療法 : 心氣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8.
66. 趙憲泳.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9.
67.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乙酉文化社. 1950.
68.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學林社. 1983.
69. 趙憲泳.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 京城. 東洋醫藥社. 1937.
70. 趙憲泳의 저, 朴季祚 편.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全州. 全北漢醫藥組合. 1942.
71. 中外日報. 李相協.
72. 한글학회50돌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73. 漢城日報. 서울. 梁在廈.
74. 許浚 著, 趙憲泳, 金東日 외 10인 譯. 東醫寶鑑1-5. 서울. 여강출판사. 1994.
75. 황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76. 조광렬. 나의 할아버지 조현영 어른과 형제분들. 조지훈문학동산. 2017. [cited on July 10, 2019]; Available from: URL: [http://m.cafe.daum.net/krcho45/VPOT/29?q=D\\_6Yyoqc24i850](http://m.cafe.daum.net/krcho45/VPOT/29?q=D_6Yyoqc24i850)
77. 조현영. 위키백과. 2002. [cited on July 10, 2019]; Available from: URL: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D%97%8C%EC%98%81>

## [부록]

### 趙憲泳 관련 연표

- 1900년 3월 27일<sup>1)</sup> : 경상북도 英陽 출생. 본관은 漢陽, 자는 應文, 호는 海山. 경상북도 대구보통학교 수료.  
경상북도 영양보통학교 졸업.  
1916년 4월 : 대구고등보통학교 입학.  
1920년 3월 : 대구고등보통학교 졸업.  
1920년 8월 15일 : 영양청년회 창립.  
1921년 10월 30일 : 영양청년회 정기회에서 議事部長 선출.  
1922년 3월 4일 : 영양청년회에서 「教育에 對한 吾人の 覺悟」 강연.  
1923년경 :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유학.  
1925년 3월 1일 : 제국대학 불교청년회관에서 열린 3.1운동 6주년 기념회에서 사회. 시위 후 체포됨.  
1926년 : 재일본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  
1926년 8월 8일 : 영양청년연맹에서 「大阪 모히 中毒을 보고」 강연.  
1927년경 :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사범부 영문과 졸업. 영문학 학사.  
1927년 5월 7일 : 와세다(早稻田)대학 스콧트홀에서 열린 新幹會 東京支會 창립대회에서 초대회장 선임.  
1927년 7월 7일 : 일시 귀국 후 신간회 영양지회 설립 준비위원 결성.  
1927년 8월 16일 : 신간회 영양지회 창립총회.  
1927년 10월 28일 : 정무총감을 방문 조선공산당 피고인 고문에 대한 항의.  
1927년 12월 18일 : 우에노(上野)자치회관에서 新幹會 東京支會 제2회대회 개최.  
1928년 : 연초 귀국. 신간회 본부 총무이사. 부산에서 일어난 일본인 선주와 조선인 어민 사이의 분쟁에 조사 단으로 파견됨.  
1928년 6월 15일 : 朝鮮教育協會 정기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선출.  
1928년 7월 : 신간회 전국순회강연에서 강원, 안동, 김천 지방을 담당하다 구속됨.  
1929년 1월 19일-20일 : 신간회 京城支會 임시대회에서 본부대회 대표회원으로 선출.  
1929년 2월 : 신간회 본부 규약부원.  
1929년 6월 28일-29일 : 신간회 全國復代表 전체대행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 상무위원으로 선출. 이후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  
1931년 5월 16일 : 신간회 해산.  
1931년 9월 12일 :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재일본동경조선인 中國水災同情會 발족 상임위원.  
1932년 : 재귀국. 晴崗 金永勳과 만남.  
1932년 3월 3, 4, 5일 : 「民衆保健과 理療法」 朝鮮日報에 발표.  
1932년 5월 20일 : 朝鮮理療會 창립. 會長 선임.  
1932년 5월 24, 26, 27, 28일 : 「봄을 타는 이는 이렇게 하시오」 東亞日報에 발표.  
1933년경 : 東洋醫藥社 설립.  
1933년, 1월 3, 8, 10, 11, 12, 13, 14일 : 「가정에서 필요한 진단법과 치료법」 每日申報에 발표.  
1934년 2월 16, 18, 20일 : 張基茂 「漢方醫學 復興策」 朝鮮日報에 발표.  
1934년 3월 9, 10, 11, 13, 14일 : 鄭權陽 「張基茂氏의 所論을 읽고」 朝鮮日報에 발표.

1) 김동일의 편. 동의학사전. 서울. 麗江出版社. 1989. p.738. : 1900년 3월 27일 출생, 1988년 5월 23일 사망으로 되어 있음. 한국위키백과에는 1901년 1월 8일생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로 보인다.

- 1934년 3월 15, 16, 17, 18, 20, 21, 23, 24, 25, 27, 28, 29, 30, 31일 : 李乙浩 「綜合醫學 樹立의 前提」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4월 19, 20, 21, 22, 24, 25, 26, 27, 29, 5월 1, 2일 : 張基茂 「鄭槿陽氏의 提言에 答함」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5월 3, 4, 5, 6, 8, 9, 10, 11일 : 「東西醫學의 比較批判의 必要」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5월 30, 31일, 6월 1, 2, 3, 5, 7, 8일 : 「陰陽說의 理論과 實際」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6월 20, 21, 22, 24, 26, 27, 28, 29, 30, 7월 1, 2, 3, 4, 5, 6, 7일 : 「臟腑論의 新研究」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7월 13, 14, 15, 18, 19, 20, 22, 24, 25, 26, 27, 29, 31, 8월 1, 2, 3, 4일 : 鄭槿陽 「趙憲泳氏의 漢醫學論을 評함」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10월 15일 : 東西醫學研究會 총회 개최. 간사 선임.
- 1934년 10월 17, 18, 19, 20, 22, 23, 24, 27, 30, 31일 : 「한글統一案의 批判과 修正」 朝鮮中央日報에 발표.
- 1934년 10월 19, 20, 23, 30, 11월 2, 3, 4, 6, 7, 8, 9, 11, 20, 21, 22일 : 「漢醫學論에 對하여 鄭槿陽氏의 評을 읽고」 朝鮮日報에 발표.
- 1934년 12월 15일 : 『(應用自在)通俗漢醫學原論』(東洋醫藥社) 간행.
- 1935년 1월 1일 : 『東洋醫藥』 창간호 발간. 편집 겸 발행인. 「漢方脈學의 新研究」, 「本草藥理學과 當百草說以 制藥說」 「李濟馬四象醫論抄錄」 『東洋醫藥』(제1호, 東洋醫藥社)에 발표. 「醫學上으로 본 茶山先生」 『新朝鮮』(제8호, 新朝鮮社)에 발표.
- 1935년 1월 12, 15일 : 「여자의 냉증은 왜 생기나」 東亞日報에 발표.
- 1935년 1월 14일-19일 : 全州通俗漢醫學講話 강의.
- 1935년 1월 20일-21일 : 忠南醫生講習會 강의.
- 1935년 1월 23일-24일<sup>2)</sup> : 忠南藥種商講習會 강의.
- 1935년 3월 1일 : 『東洋醫藥』 제2호 발간. 「漢方脈學의 新研究」, 「本草藥理學과 氣味論」 「漢藥法製(修治)는 왜하는가」 「李濟馬四象醫論抄錄」, 「張介賓景岳全書演義」 『東洋醫藥』(제2호, 東洋醫藥社)에 발표.
- 1935년 3월 8, 9, 10, 12, 13, 14일 : 「陰陽五行說에 對하여 天台山人의 蒙을 啓함」 東亞日報에 발표.
- 1935년 5월 1일 : 『東洋醫藥』 제3호 발간. 「漢方脈學의 新研究」, 「張介賓景岳全書演義」, 「疾病의 原因」, 「李濟馬四象醫論抄錄」 『東洋醫藥』(제3호, 東洋醫藥社)에 발표.
- 1935년 5월 25, 26, 28, 29, 30일 : 「신경쇠약」 시리즈 朝鮮日報에 발표.
- 1935년 5월 26일 : 朝鮮漢藥業組合 제12회 정기총회 강연회 강의.
- 1935년 5월 29일 : 『民衆醫術理療法』(東洋醫藥社) 간행.
- 1935년 6월 1일 :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한글』(제3권제5호, 朝鮮語學會)에 발표.
- 1935년 6월 19, 20, 21, 22, 25일 : 「妊婦는 왜 신 것을 조하하나」 東亞日報에 발표.
- 1935년 7월 16, 17일 : 「漢醫學上으로 본 茶山醫學의 特色」 朝鮮日報에 발표.
- 1935년 7월 20, 23일 : 「까딱하다가는 더위를 먹습니다」 東亞日報에 발표.
- 1935년 8월 5일-9일 : 조선어표준어 査定委員會 第二讀會 査定委員으로 참여, 修正委員 선정.
- 1935년 8월 22, 23, 24일 : 「漢醫學より見た茶山醫學の特色」 朝鮮通信에 발표.
- 1935년 9월 3, 4, 5일 : 「장질부사는 그러케도 무서운 병인가 민간치료법과 예방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5년 10월 1일 :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 「四象醫學에 對하여」 『新東亞』(제5권제10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5년 11월 1일 : 「胃腸病의 漢方治療」 『新東亞』(제5권제11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5년 12월 1일 : 「肺病의 漢方治療法」 『新東亞』(제5권제12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本草藥理學과 氣味論 (續)」 『忠南醫藥』(제2호, 忠南醫藥照合)에 발표.

2) 東洋醫藥社. 本誌 創刊後 漢醫藥界의 動向. 東洋醫藥. 1935. 3. p.70. : 毎日申報 1935년 1월 27일자에는 1월 24부터 25일까지 게재되었다고 함.



- 1935년 12월 19일-21일 : 제2회 咸南醫生講習會 강의.
- 1936년 : 인사동에 日月書房 설립. 『조선어대사전(우리말큰사전)』 주해 한의학 분야 전문위원 활동.
- 1936년 1월 1일 : 「長壽에 對한 漢醫養生法」 『新東亞』(제6권제1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6년 1월 7, 8, 9, 10, 11일 : 「감기는 만병의 근본 예방과 치료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6년 1월 20일 : 「漢方脈學의 新研究」 『忠南醫藥』(제3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6년 2월 1일 : 「農村家庭의 常備藥과 簡易治療法」 『新東亞』(제6권제2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6년 2월 14, 15, 18, 19, 20, 21일 : 「갓난 아기들의 간기(肝氣)는 어떤 병인가」 東亞日報에 발표.
- 1936년 3월 1일 : 「生殖, 泌, 尿, 排便의 異常과 漢方療法」 『新東亞』(제6권제3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6년 3월 14, 15, 17, 18, 19일 : 「불면증은 왜 생기나 원인과 치료방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6년 3월 20일 : 「胃腸病의 療法(新東亞轉載)」 『忠南醫藥』(제4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6년 4월 1일 : 「神經衰弱症의 原因과 療法」 『新東亞』(제6권제4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6년 4월 10, 11, 12, 14일 : 「임신 만흔 봄철에 나타는 어떠한 막을까」 東亞日報에 발표.
- 1936년 4월 18일 : 通俗漢醫學講演會 개최. 「漢方醫學에서 본 現代病」 강연.
- 1936년 5월 1일 : 「失血症의 治療法」 『新東亞』(제6권제5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6년 5월 20일 : 「胃腸病의 療法(第四號二八首續)」 『忠南醫藥』(제5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6년 7월 1일 : 「戀愛 結婚 新婚」 『新東亞』(제6권제7호, 東亞日報社)에 발표.
- 1936년 8월 1, 4일 : 「젊은이들의 정신이상 원인과 치료방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6년 10월 11, 13, 15, 22일 : 「東洋과 西洋의 對照 묵은 問題의 새로운 吟味」 朝鮮日報에 발표.
- 1937년 1월 20일 : 「肺病治療에 관한 몇가지」 『漢方醫藥』(제9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7년 4월 5일 : 「肺病漢方治療法(肺癆證治)」(東洋醫藥社) 간행.
- 1937년 6월 19, 20, 22, 23일 : 「人蔘과 鹿茸 왜 靈藥이라 하는가」 東亞日報에 발표.
- 1937년 8월 : 「新醫學의 發展과 漢醫學의 今後」 中央時報에 발표.
- 1937년 9월 1일 : 「우승 듯하면서 맘 놓 수 없는 각기와 부증」 東亞日報에 발표.
- 1937년 9월 21, 22일 : 「환절기위생이 절기에 제일 만흔 감기와 토사증」 東亞日報에 발표.
- 1937년 10월 21일 : 「날이 치우면 만허지는 허리 아픈 증세」 東亞日報에 발표.
- 1937년 12월 19일 : 『物質文明은 어디로』(日月書房) 간행.
- 1938년 : 『神經衰弱症治療法 : 心氣證治』(東洋醫藥社) 간행.
- 1938년 1월 3일 : 「말은 思想即生活이다 語彙를琢磨하라」 東亞日報에 발표.
- 1938년 2월 23일 : 「이번 겨울에 유행하는 감기의 치료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8년 2월 26, 3월 1일 : 「일은 봄부터 만히 나는 중이염 치료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8년 7월 2, 5일 : 「사망통계를 통해서 본 폐결핵환자」 東亞日報에 발표.
- 1938년 7월 15일 : 「公開 못하는 어제 낮 꿈」 東亞日報에 발표.
- 1938년 8월 25일 : 「神經衰弱症 治療法(續前號)」 『漢方醫藥』(제19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8년 9월 3일 : 「백약이 무효하다는 백일해의 치료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8년 9월 25일 : 「神經衰弱症 治療法(續前號)」 『漢方醫藥』(제20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8년 10월 25일 : 「神經衰弱症 治療法(續前號)」 『漢方醫藥』(제21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8년 12월 6, 8일 : 「겨울이 되면 고생하는 해수천축 치료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9년 2월 2일-7일 : 全州漢醫藥組合 주최 漢醫藥講習會 강의.
- 1939년 4월 : 『大衆醫學』 4월호 집필진으로 참여.
- 1939년 4월 6일, 7일 : 「한방으로 본 발진지부스 원인과 예방치료법」 東亞日報에 발표.
- 1939년 7월 15일 : 『胃腸病治療法(脾胃證治)』(東洋醫藥社) 간행.
- 1939년 8월 10일 : 「痢疾의 證과 治療」 『漢方醫藥』(제27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9년 9월 15일 : 「洋醫學徒의 漢方醫學觀」 『東洋醫藥』(제1권제3호, 東洋醫藥協會出版部)에 발표.

- 1939년 9월 30일 : 「痔疾의 證과 治療」 『漢方醫藥』(제28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39년 11월 16, 18일 : 「부인병에 제일 만흔 화와 냉의 증세」 東亞日報에 발표.
- 1940년 1월 25일 : 「婦女의 火와 冷」 『漢方醫藥』(제30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40년 2월 21, 22일<sup>3)</sup> : 「科學으로 본 漢方醫學」 방송강연.
- 1941년 3월 1일 : 「性格과 運命」 『春秋』(제2권제2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1년 4월 12일 : 『婦人病治療法(女科證治)』(東洋醫藥社) 간행.
- 1941년 6월 1일 : 「體質과 性格」 『春秋』(제2권제5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1년 11월 1일 : 「李聖鳳, 趙憲泳 對談. 東西醫學上으로 본 長壽強壯의 秘訣」 『春秋』(제2권제10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2년 9월 1일 : 「나와 讀書」 『春秋』(제3권제9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2년 10월 1일 : 「肺病의 豫防과 治療」(漢方家庭療法講座其一) 『春秋』(제3권제10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2년 11월 1일 : 「肺病의 豫防과 治療」(漢方家庭療法講座其二) 『春秋』(제3권제11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2년 11월 25일 :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全北漢醫藥組合) 간행, 「小兒病治療法(二)」 『漢方醫藥』(제44호, 忠淸南道漢方醫藥協會)에 발표.
- 1942년 12월 1일 : 「肺病의 豫防과 治療」(漢方家庭療法講座其三) 『春秋』(제3권제12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2월 1일 : 「肺病의 豫防과 治療」(漢方家庭療法講座其四) 『春秋』(제4권제2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3월 1일 : 「胃腸病의 攝養과 治療」(漢方家庭療法講座其五), 「鄉藥集成方의 重刊을 보고」 『春秋』(제4권제3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4월 1일 : 「胃腸病의 攝養과 治療(二)」(漢方家庭療法講座六) 『春秋』(제4권제4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5월 1일 : 「胃腸病의 攝養과 治療(三)」(漢方家庭療法講座七) 『春秋』(제4권제5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6월 1일 : 「胃腸病의 攝養과 治療(四)」(漢方家庭療法講座八) 『春秋』(제4권제6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7월 1일 : 「假死 이야기」 『春秋』(제4권제7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9월 1일 : 「神經衰弱症의 原因과 治療(一)」(漢方家庭療法講座九) 『春秋』(제4권제8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3년 11월 1일 : 「神經衰弱症의 原因과 治療(二)」(漢方家庭療法講座一〇) 『春秋』(제4권제10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4년 1월 1일 : 「婦人病의 攝養과 治療(一)」(漢方家庭療法講座一一) 『春秋』(제5권제1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4년 2월 1일 : 「婦人病의 攝養과 治療(二)」(漢方家庭療法講座一二) 『春秋』(제5권제2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4년 3월 1일 : 「婦人病의 攝養과 治療(三)」(漢方家庭療法講座一三) 『春秋』(제5권제3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4년 8월 1일 : 「婦人病의 攝養과 治療(四)」(漢方家庭療法講座一四) 『春秋』(제5권제4호, 朝鮮春秋社)에 발표.
- 1945년 8월 28일 : 원세훈, 조병옥 등과 조선민족당 건설.
- 1945년 9월 4일 :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 사무차장.
- 1945년 9월 16일 : 한국민주당 창당.
- 1945년 11월 1일 : 한국민주당 지방부 부장.
- 1946년 2월 2일 : 대한민국비상국민회의 후생위원.
- 1946년 5월 25일 : 한국민주당 지방유세대 경상북도 담당.
- 1946년 10월 14일 : 한국민주당 연락부장.
- 1946년 11월 26일 : 한국민주당 상임위원.
- 1947년 1월 25일 : 「嶺南騷擾의 真相原因 對策」 『再建』(창간호, 再建社)에 발표.
- 1947년 1월 26일 : 반탁독립투쟁위원회 중앙집행위원.
- 1947년 3월 1일 : 「國立서울大學校案과 學生盟休에 對하여」 『再建』(제2호, 再建社)에 발표.
- 1947년 5월 25일 : 「右翼陣營의 行動統一을 強調함」 『再建』(제3호, 再建社)에 발표.

3) 趙憲泳의 저, 朴季祚 편.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 全州. 全北漢醫藥組合. 1942. p.165. :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서울. 杏林書院. 1957. p.165.)에는 1940년 2월 20, 23일로 되어 있는데 착오로 보인다.

- 1947년 6월 3일 : 반탁국민대회 참석.  
 1947년 9월 19일 : 한국민주당 상임집행위원.  
 1947년 10월 14일 : 한국민주당 조직부장.  
 1948년 2월 15일 : 한국민주당 군산지부에서 「內外情勢와 國民의 自覺」 강연.  
 1948년 5월 10일 : 민족진영 단일후보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48년 6월 1일 :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기초위원으로 선출.  
 1948년 6월 3일 : 헌법및정부조직법 기초위원 선임.  
 1948년 6월 6일 : 「憲法制定에 臨한 私案」 京鄕新聞에 발표.  
 1948년 6월 17일 : 제헌국회 징계위원회 활동.  
 1948년 9월 3일 : 이승만대통령 반민족행위처단법을 견제하는 담화 발표.  
 1948년 9월 4일 :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대통령 담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함.  
 1948년 9월 7일 : 반민족행위처벌법 국회 통과.  
 1948년 9월 10일 : 「大韓民國憲法論」 『海東公論』(제3권제4호, 海東公論社)에 발표.  
 1948년 9월 19일 : 「國際聯合과 韓國獨立-大西洋憲章의 精神을 想起하라」 京鄕新聞에 발표.  
 1948년 9월 26일 : 한국민주당 결성3주년 기념대회에서 조직부장으로 국내정세 보고.  
 1948년 10월 22일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1948년 10월 31일 : 한국민주당 탈당. 무소속4).  
 1948년 12월 : 반민특위 및 주요인사에 대한 암살계획 폭로.  
 1949년 3월 20일 : 민주국민당 입당, 상임위원5).  
 1949년 5월 12일 : 「議政壇上의 一年回顧」 東亞日報에 발표.  
 1949년 5월 15일 : 「美國撤退와 國內輿論」 『새한민보』(제49호, 새한민보사)에 발표.  
 1949년 6월 1일 : 英陽 自宅 폭도들에 피습. 가옥 6호 전소.  
 1949년 7월 16일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1반 경상북도 담당 조사위원 선출.  
 1949년 8월 1일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문화 교육 종교 법률계 조사 책임위원 선정, 「알타協定과 極東暗雲」 『民聲』(제5권제8호, 高麗文化社)에 발표.  
 1949년 8월 5일 : 민주국민당 단체교섭회 구성에 포함.  
 1949년 8월 14일 : 「건국 1년의 업적(정계편)」 서울신문에 발표.  
 1949년 9월 1일 : 「北大西洋同盟과 太平洋同盟」 『新天地』(제4권제8호, 서울新聞社)에 발표.  
 1949년 9월 3일 : 민주국민당 제1회전국대회 준비위원회 의사부 소속.  
 1949년 10월 12일 : 대구에서 동양의학 재건을 위한 강습회에 고문으로 참여.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결정.  
 1949년 10월 15일 : 민주국민당 제1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국내정세에 대해 보고.  
 1949년 10월 16일 : 민주국민당 제1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 선출.  
 1949년 10월 17일 : 「國民會運營엔 愼重(上)」 東亞日報에 발표.  
 1949년 10월 20일 : 민주국민당 상무집행위원 선출.  
 1949년 10월 28일 : 「民族精神理念과 그 昂揚方法論」 『民族文化』(창간호,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에 발표.  
 1949년 11월 21일 : 「和戰 兩樣의 態勢」 서울신문에 발표.  
 1949년 11월 25일 : 「國會와 政府」 『國會報』(제1호, 國會事務處)에 발표.  
 1950년 1월 1일 : 「歸屬財産은 어떻게 處理되나」 『民聲』(제6권제1호, 高麗文化社)에 발표. 「現政府에 對한 나  
의 要望」 『新天地』(제5권제1호, 서울新聞社)에 발표.  
 1949년 1월 9일 : 민주국민당 탈당. 무소속.  
 1950년 1월 25일 : 『通俗漢醫學原論』(乙酉文化社) 재간행.

4) 한국위키백과의 기록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5) 한국위키백과의 기록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1950년 1월 27일 : 「權力에 屈從阿附 清廉한 節操 없다」 漢城日報에 발표.  
1950년 2월 20일 : 「國內政界의 回顧와 展望」 『民族文化』(제2권제1호,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에 발표.  
1950년 3월 28일 : 16명 무소속 의원들 명의로 양심 자유 보장을 강조하는 성명 발표.  
1950년 4월 17일 : 「民族的 重大危機」 東亞日報에 발표.  
1950년 5월 30일 : 제2대 국회의원 당선. 무소속.  
1950년 6월 19일 : 제2대 국회 개회.  
1950년 6월 24일 : 무소속 구락부 발족대회.  
1950년 6월 25일 :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납북. 후일 평양의과대학 동의학부 교수 역임, 조국통일상 수상.  
1955년 : 『民衆醫術理療法』, 『肺病漢方治療法 : 肺癆證治』, 『神經衰弱症治療法 : 心氣證治』, 『胃腸病治療法 : 脾胃證治』, 『婦人病治療法 : 女科證治』 등 杏林書院에서 한정판으로 각각 재간행.  
1956년 7월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상무위원).  
1957년 : 「동방의학의 중용성과 그 발전 전망에 대하여」 『조선과학통보』에 발표.  
1957년 11월 25일 :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杏林書院) 재간행.  
1963년 : 과학원 의학연구소가 의학과학원으로 개명, 소속 동의학연구소도 동의학연구소로 개명. 여기에서 연구 진행.  
1963년 7월 1일 : 『東洋醫學叢書 : 五種』(杏林書院) 간행.  
1965년 : 동의학박사학위 취득.  
1971년 1월 31일 - 1972년 2월 29일 : 북조선 국가원수 겸 국무원수상 예하 朝鮮東洋醫學科學特報秘書官  
1974년 12월 31일 : 『醫學 上으로 본 茶山先生』 『韓國學』(제4집, 韓國學研究所)에 수록.  
1979년 12월 25일 : 「漢醫學上으로 본 茶山醫學의 特色」, 「醫學上으로 본 茶山先生」 등 『茶山學報』(제2집, 茶山學報刊行委員會)에 수록.  
1980년 7월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서기장.  
1981년 7월 1일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기발아래 상봉할 그날을 위해」 『천리마』(제266호)에 발표.  
1987년 : 『한방이야기』(學園社) 간행.  
1988년 5월 23일 : 북한 평양에서 별세. 평양시 삼석구역에 있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회의 특설묘지 안장. 2004년경 평양시 용성구역 용궁1동 재북인사들의 묘역으로 옮김.  
1994년 : 『東醫寶鑑(1-5)』(여강출판사) 간행.  
1997년 : 『漢醫學의 批判과 解說』(소나무) 재간행.  
1999년 : 『통속한의학원론 :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한의학의 명저』(학원사) 재간행. 『醫林撮要(國譯韓醫學大系 5)』(海東醫學社) 간행.

## 기타 자료

- 『傷寒新論』(未刊)  
『良方集解』(未刊)  
『東醫診斷學』(未刊)  
『小兒病治療法』(未刊)  
『海山隨筆集』(未刊)  
『會議演說集』(未刊)  
『동의처방학』, 『동의용어사전』(북한에서 저술)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북한에서 번역)